

예술부산

ART BUSAN MONTHLY

2026 **8**
VOL.254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불협화음
DISSIDENT
CHORUS

부산현대미술관
스페이스 원지
(구)부산남고등학교

Busan Museum of Contemporary Art
Space OneZ
Former Busan Nam High School

2026부산비엔날레
Busan Biennale 2026
2026. 8. 29. — 11. 1.

강세진, 김성민, 류성민, 민중가요 저장소, 박현성, 백현주, 이등근, 임민욱, 전소정, 조은

조유, 5D (째미리, 마크 로우, 사라 신), 알리아스카르 아바카스, 엘리슨 응우엔, 덴지 라, 브라헨 탈, 드렉시아 / 아부 카림 하크, 에릭 보들레르, 파티마 칼림 칸, 겔리 모라토 로레도, 안찬호를 에르테네바야르, 조아르 송루야, 조슈아 리, 조타 롱, 사, 술기안, 아브라함 "토가르", 루리안 토티제, 카말라 이드나함 이스하그, 말라 루크, 라라 외젤, 루이스 호키, 미라 만, 모 셋, 나탈샤 토티에, 은키시, R.I.P. 제르메인, 슈앙 리, 타이 샤니, 타냐 티라다, 티안주오, 톰 할렛, 울트라-레드, 우미 이시하라, 어슬러 K. 르 퀴엔, 야잔 칼릴리, 자흐라 말카니

DISSIDENT 불협화음
CHORUS 합창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비엔날레
BIENNALE BIENNIALE

문화체육관광부

SHINSEGAE
CENTURY CITY

BNK 부산은행 F1963

삼천이육

NOL

DISSIDENT
CHORUS
불협화음
합창

부산비엔날레
BIENNALE BIENNIALE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예감

2026년 2월~12월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전시장

공연 19:00 / 전시 10:00 open



- 2.4.(수) 음악하는 사람들 Music in <와그작!! 달빛 아래 동물의 사육제>
- 2.6.(금) 운사당: 정자경 가야금병창 아지트 <소리, 바다를 건너다>
- 2.11.(수) 해낙낙 <도니제티 오페라-사랑의 묘약>
- 3.9.(월) ~ 3.15.(일) 허종자 <지은 허종자 개인전>
- 3.23.(일) ~ 3.29.(일) 홍찬효 <홍찬효의 시간여행전>
- 4.20.(월) ~ 4.26.(일) 파티나 컨트리 <who loves old thing>
- 6.8.(월) ~ 6.14.(일) 나연희 <제27회 나연전>
- 6.22.(월) ~ 6.28.(일) 김덕용 <글뎌 김덕용 서예전>
- 7.13.(월) ~ 7.19.(일) 부산미술서예작가회 <부산 미술 서예작가회전>
- 7.27.(일) ~ 8.2.(일) 부산문인협회 시분과 <시로 푸른 감성을 전하다>
- 8.17.(일) ~ 8.23.(일) 부산예술건축문화회 <공간의 여정>
- 8.24.(월) ~ 8.30.(일) 부산미술협회 수채화분과 <숨겨진 얼굴, 물빛으로 피어나다>
- 9.7.(일) ~ 9.13.(일) 이동욱 <이동욱 개인전-시선이 머문 자리>
- 11.4.(수)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사계>
- 11.11.(수) 부산시민윈드오케스트라 <부산, 바람의 시작>
- 11.18.(수) 부산아이디발레단 <렉처 퍼포먼스 발레리노가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발레>
- 11.25.(수) 더부산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더부산필하모니아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클래식>
- 12.2.(수) 이바디예술단 <술가락 젓가락 들고 떠나는 메구놀이(풍물) 맛 기행>
- 12.9.(수) 출과사람 <추풍연(秋風宴)>
- 12.16.(수) 원기동 국악예술단 <사노라면-화류춘몽>



ART BUSAN MONTHLY VOL.254

2026 **AUGUST 8**

CONTENTS

권두칼럼

06 AI는 답을 찾고, 예술은 질문을 만든다 _ 김선호

에서제서

- 08 제15회 젊음의 축제
- 14 부산예술회관 문화가있는날 - 숨겨진 얼굴, 물빛으로 피어나다
- 15 부산예술회관 문화가있는날 - 공간의 여정
- 16 2026 부산비엔날레
- 18 부산근현대역사관 금고미술관 - 2050 해양수도 부산, 파도를 넘어 미래로
- 20 제37회 부산사진대전
- 22 부산문화회관 - 챔버뮤직페스티벌
- 24 낙동아트센터 - 2026NAC렉처콘서트
- 26 2026부산건축가회 춘계건축탐방 _ 강영자
- 30 2026 한국궁중꽃박물관 특별기획전 - 시간을 새기다展
- 32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 확정
- 34 부산박물관 - 국립고궁박물관 공동 특별기획전
- 조선의 기록과 문화, 만세萬世에 전하노니
- 36 복천박물관 - 고분의 기억 오늘을 빛다
- 38 범천 소공인 특화 지원을 위한 'AI 마케팅 전문가 과정' 특강
- 39 제50회 부산동래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성료



표지_류형욱 Yoo Hyungwook

-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 부산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석사
- 부산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
- 개인전 18회
- 단체전 200여 회
- 현) 동아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 재직

DSC00070_162.2×130.3cm, 한지에 혼합채색(Overpainting), 2026



포토에세이

40 이끼 _ 이영애

수필의 뜰

44 솜뿔 _ 김창균

인물포커스

48 안무가 박지현 _ 유다정

예인탐방

50 연출가·연극작가 김숙경 _ 이선

예술가열전 247

52 사진작가·시인 주철민 _ 권오혁

손으로 쓴 문학

56 종이컵 _ 조현숙

들여다보기

58 미술/ 류형욱 작가 개인전 _ 김승호

60 음악/ 부산심포니 NAC 시그니처 클래식 IV

엘가와 쇼스타코비치, 공간의 공감 _ 류태형

62 연극/ 부산 '지역특성화 국제교류 연출가전'이 만든 공동창작의 지형 _ 신윤아

기획연재

66 역사와 함께 읊어보는 부산가요 - 제12화 「에레나가 된 순희」와 댄스홀 _ 이용득

70 세상의 쉼 - “자유는 책임에서 완성된다” _ 심수화

74 예총·전시·공연 뉴스

80 신간 안내

82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6년 8월 통권 254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 라-01255)

발행일_ 2026년 7월 23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1997@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김두진(건축가회), 강명욱(국악협회), 남선주(무용협회), 박혜숙(문인협회), 최장락(미술협회), 강종관(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권성은(음악협회)

편집장_ 정해주 편집기자_ 이선 디자인_ 두손컴 제호_ 김충문 교정·교열_ 배해경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AI는 답을 찾고, 예술은 질문을 만든다

글 _ 김선호 (株)YJ 산업 대표이사

오늘날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일뿐만 아니라 의료, 금융, 국방, 교육 등 사회 전반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누구나 활용하는 생활의 도구로 자리 잡았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고 진단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글을 쓰며,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인간의 창작과 노동 전반으로 활용 범위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AI 없는 세상을 더 이상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존재한다. 사회가 직면한 진정한 문제와 사람들의 숨은 욕구를 발견하는 일이 그중 하나이다. 많은 인문학자는 인간의 일상적 행동을 질문하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본질적인 통찰이 비롯된다고 강조한다. 현장에서만 포착할 수 있는 눈빛과 몸짓, 말투와 침묵, 공간의 분위기와 관계의 결은 AI가 가진 데이터만으로는 온전히 해석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일은 인간의 감각과 공감, 직관이 지닌 고유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해답을 제시한다. 그러나 인간은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현장의 작은 변화에서 가능성을 읽어내며 기술을 사람과 환경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관찰하고, 질문하고, 상상하는 과정을 통해 평범한 일상을 혁신의 원천으로 바꾸는 것, AI 시대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태도는 예술이 오래전부터 지켜온 창작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예술은 ‘보는 힘’을 강조한다. 대상 안에 숨은 의미와 관계, 삶의 본질을 발견하는 일,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시선으로 다시 읽어내는 것이 곧 예술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예술가들은 표면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질문을 길어 올림으로써 또 다른 세상을 창조해 낸다. 관찰과 통찰은 예술의 영역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된다. 특히 끊임없이 변화하는 제조 환경에서는 현장을 읽는 눈과 축적된 경험,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철학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YJ 산업은 기술을 단순히 생산성과 효율의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환경친화적인 패키징과 가스켓 단열재를 개발·생산하며 자동차와 선박, 플랜트 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현장의 요구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조 환경을 만들어 왔다. 우수한 품질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기술력뿐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함께 바라보는 경영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 할 수 있다.

AI 시대일수록 기술의 속도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기술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은 질문을 발견하고 데이터를 넘어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디지털 세계에 의존하거나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흐름을 유연하게 헤쳐 나가며 그 안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술이 파편화된 개인을 잇고 인간다운 삶을 지탱하게 하는 가장 인간적인 연대 방식이듯, 결국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사유와 공감, 관계를 지키며 기술과 균형 있게 공존하는 지혜일지도 모른다.

제15회 젊음의 축제

2026. 7. 18.
부산은행 본점





제신

오프더리 베를경연

오프더리 베를경연

국제

국 부

K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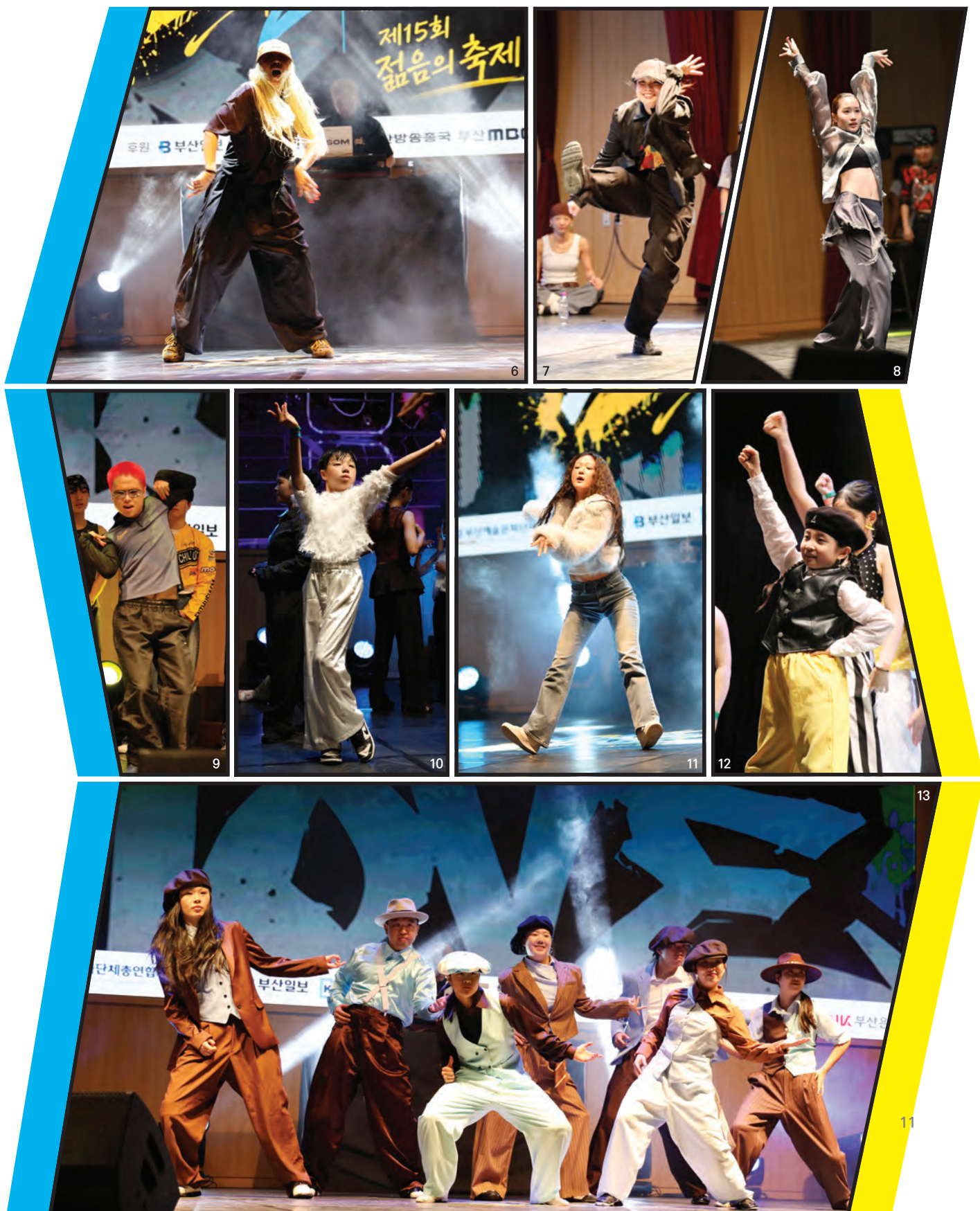
SCH

| 예서제서

- 1 왁킹우승자 김태희
- 2 왁킹 베스트4
- 3 오픈스타일 결승
- 4 퍼포먼스 대상_G.N.B FAMILY
- 5 퍼포먼스 금상_댄스포라이프



6 힙합 심사위원 저지쇼 7 락킹 배틀경연 8 오픈스타일 배틀경연 9, 10 예선 참가자 11 왁킹 심사위원 저지쇼 12 퍼포먼스 13 축하공연_MAVERICK FLATS





14

춤추러 부산가자~~!!!

전국의 내로라하는 스트릿댄서들이 부산에 모였다. '제15회 젊음의 축제' 스트릿댄스 경연대회에는 약 600명의 참가자가 출전하며 전국 규모 대회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참여 열기를 보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댄서들은 이른 시간부터 치열한 배틀을 펼치며 스트릿댄스 문화의 높은 관심과 저변을 확인시켰다.

이번 경연은 왁킹, 힙합, 락킹, 오픈스타일 등 4개 장르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예선을 통과한 장르별 16명이 16강부터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자를 가렸다. 심사는 전문 심사위원과 시민평가단이 함께 참여해 현장감과 긴장감을 더했다.

본격적인 경연에 앞서 참가자들은 행사장 곳곳에서 몸을 풀며 분위기를 달궜고, DJ SOM의 음악이 흐르자 무대와 객석은 하나 되어 축제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첫 순서는 왁킹이었다. 1970년대 미국 로스앤젤레스 디스코 문화에서 탄생한 춤으로 빠른 팔동작과 화려한 포즈, 자신감 있는 표현력이 특징인 장르다. 참가자들은 개성 있는 의상과 풍부한 표정,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15



16

14 락킹 배틀경연 15 왁킹 배틀경연

16 힙합 배틀경연 17 오픈스타일 우승자_이나은

18 오픈스타일 우승자와 2위 19 단체사진



이어진 힙합 경연에서는 음악의 리듬과 그루브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움직임과 즉흥성이 돋보였다. 몸 전체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동작은 관객들의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했다.

락킹은 빠르고 경쾌한 움직임 속에서 순간적으로 동작을 멈추는 '락Lock' 기술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위트와 유머를 담은 퍼포먼스는 객석 곳곳에서 웃음과 환호를 이끌어 내며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었다. 퍼포먼스 부문에는 11개 팀이 참가했으며, G.N.B FAMILY가 우승을 차지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단 40

초의 결승 배틀 끝에 왁킹은 김태희, 힙합은 주형기, 락킹은 강유나, 오픈스타일은 이나은이 각각 정상에 올랐다.

밤 10시 가까이 이어진 이번 행사는 전국의 댄서와 시민이 함께 호흡하며 스트리트댄스의 매력과 에너지를 나누는 축제의 장이었다. 부산은 하루 동안 젊음과 열정으로 가득한 거대한 무대로 변했다. 젊음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날의 현장을 사진으로 담아본다.

/ 편집실



부산예술회관 문화가있는날 숨겨진 얼굴, 물빛으로 피어나다

2026. 8. 24. ~ 30.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대중에게 친숙한 장르인 수채화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며 다양한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부산미술협회 수채화분과(분과장 이순이)가 부산예술회관 문화가있는날 기획 전시로 '숨겨진 얼굴, 물빛으로 피어나다'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투명한 물빛으로 표현된 인물들의 얼굴을 통해 저마다의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낸 인물화 50여 점을 소개한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에 담긴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수채화의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인물들의 표정과 시선에 담긴 감정과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주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부산에서 활동하는 수채화 작가들의 전시인 만큼 전문성과 예술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채화 인물화 분야에 관심 있는 회원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기간 중인 8월 29일과 30일에는 '인물·캐릭터 그리기'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자화상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과 캐릭터를 자유롭게 그려보며 작품 감상을 넘어 직접 창작을 경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www.bsart.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_051)631-1377 / 편집실



1



2



3

1 이옥분_여름이

2 양홍근_인물 26-90 3 차다현_행복을 안고

부산예술회관 문화가있는날 공간의 여정

2026. 8. 17. ~ 23.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부산예술회관은 문화가있는날 기획전시로 부산예술건축문화회의 '공간의 여정'을 선보인다. 부산예술건축문화회는 부산 건축가회 회원과 건축에 관심있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연구모임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완성된 건축물이 아닌 설계와 구상의 과정을 선보인다. 건축가의 철학이 담긴 디자인 작업과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설계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며,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축 과정의 흐름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5인의 건축가(강영자-김문성-배수열-황종철-박주환)가 참여해 모형, 도면, 스케치 등 총 15점의 건축디자인 작품이 공개된다. 전시에서는 건축물이 완성되기까지 설계 과정을 중심으로 도면, 모형, 스케치, 건축주 요구사항 분석 자료, 리서치 과정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논리와 과정을 이해하고, 건축문화에 대한 인

식을 넓힐 수 있다.

건축은 단순한 구조물이나 공간 개념을 넘어 도시의 삶과 질을 결정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건축가의 구체적인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부산의 건축문화와 환경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시 기간 중인 8월 22일과 23일에는 '나는 건축가'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전시 작품을 바탕으로 건축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스케치하는 과정을 체험하며 건축가의 역할과 창작 과정을 보다 가까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www.bsar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_051)631-1377 / 편집실

강영자_부산환경체험교육관 리모델링



강영자_봉하마을 숙박기반시설 조성사업



불협 속에서 함께 울리는 2026 부산비엔날레

2026. 8. 29. ~ 11. 1.

부산현대미술관, 스페이스 원지, (구)부산남고등학교

에블린 사이먼스 Evelyn Simons와 아말 칼라프 Amal Khalaf 공동 전시감독이 이끄는 이번 부산비엔날레는 ‘불협하는 합창 Dissident Chorus’을 주제로, 22개국 46작가/팀이 참여한다.

세 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불협하는 합창 Dissident Chorus’은 차이와 긴장, 공명의 가능성에 주목하며 존재하는 방식들을 탐색한다. **1악장 부산현대미술관**에서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생태적 경계에서 돌봄과 재생,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내고, **2악장 영도 스페이스 원지**에서는 항만의 시간과 바다의 낮은 주파수 속에서 노동과 이동, 저항의 노래와 수중의 상상력을 이끈다. **3악장 영도 (구)부산남고등학교**는 배움과 교육, 아직 형성 중인 미래를 다시 묻는 리허설의 장으로 만난다. 이로써 부산에 하나의 집단적 울림을 형성한다.

올해 가장 큰 특징은 사운드, 음악, 퍼포먼스와 같은 집합적 실천을 중심에 둔 작가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필리핀에서 태어나 현재 브뤼셀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슈아 세라핀 Joshua Serafin**은 춤과 퍼포먼스, 안무를 통해 우주론, 정체성, 이주, 퀴어 정치학과 몸의 존재 방식을 탐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카날-퐁피두 센터와 공동 제작하는 신작을 월드 프리미어로 선보인다.

독일 유학 후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현성**은 금속과 천 등 이질적인 물성을 충돌시키며 ‘불안한 상태의 몸’을 말한다. 물질성과 연극적 긴장을 통해 다양한 감정과 관계를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한국 작가 **듀킴**은 종교, 팬덤, 케이팝 K-pop과 BDSM 등 서로 이질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의 교차점을 탐구하며, 사회

줄리앙 크뤼제 Julien Creuzet_아틸라 녹색 봉우리 기술에서 솟아나는 네 샘물은 푸른 심연의 큰 바다로 흘러들고 우리는 달의 눈물로 일렁이는 파도에 가라앉는다.
2024,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프랑스관, 베니스, 이탈리아, 설치 전경.



조슈아 세라핀 Joshua Serafin_VOID, 2022, 영상,
9분 14초,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외국인은 어디에나 있다》,
설치 전경. 베니스비엔날레 제공 (사진: 안드레아 아베추)

규범과 권력 구조를 드러내고 해체하는 작업을 전개한다.

줄리앙 크뤼제 Julien Creuzet는 카리브해 문화권의 역사와 감각을 바탕으로 바다와 이주, 정체성 문제를 몰입형 설치로 풀어낸다. 도시와 해양, 이동의 역사가 축적된 부산의 장소성을 긴밀하게 다루며 장소특정형 신작으로 독자적인 작품을 형성한다.

에릭 보들레르 Eric Baudelaire는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이자 영화 제작자, 정치학자로 사진, 영상, 설치, 퍼포먼스를 아우르는 리서치 기반 작업을 전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학생들이 촉각, 경청, 서술, 인식을 재구성하는 과정, '듣는 기쁨'을 통해 감각의 다원성을 드러내는 작업을 선보인다.

8월 30일에는 **전소정** 작가가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오페라

형식의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고, **임민욱** 작가는 부산 자갈치크루즈와 협업해 약 250명 규모의 유람선을 타고 부산 남항 일대, 영도와 자갈치 사이를 이동하며 관람하는 퍼포먼스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두 공동 전시감독은 “추출적인 이미지와 폭력적인 언어, 감시가 넘쳐나는 오늘의 세계에서 시각적인 것에서 한 걸음 물러나 소리, 몸의 감각, 시적인 경험 그리고 쉽게 포착되거나 드러나지 않는 것들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 작품에 너그럽게 감싸안기며 위로와 저항, 연대의 감각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_051)503-6111 / 편집실
사진 제공_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



듀킴 Dew Kim_이슈타르는 왜 지하 세계에 갔는가?, 2020, 혼합매체, 가변크기.



박현성 Hyunsung Park_숨쉬는 바람, 2024, 천, PVC,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P.E. 폼, 와이어, 호스, 자이언트 안, 금속링, 체인, 가변설치.

미래 부산항의 재해석

2050 해양수도 부산, 파도를 넘어 미래로

2026. 5. 29. ~ 9. 27.

부산근현대역사관
금고미술관

기후위기와 해수면 상승으로 변화할 미래의 부산은 어떤 모습일까. 부산근현대역사관(관장 김기웅)은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기념해 특별기획전 '2050 해양수도 부산, 파도를 넘어 미래로'를 개최해 미래 해양도시 부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전시는 2050년 탄소중립은 실현됐지만 해수면 상승으로 도시와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가상의 미래를 배경으로, 공예·디자인·설치·조각·회화·건축 등 다양한 현대 미술 작품을 통해 인간과 바다, 도시가 공존하는 미래를 그려낸다.

Part 1. 인간과 바다가 공존하는 '부유식 도시'

해수면 상승으로 육지가 줄어드는 미래를 배경으로 한 전시 공간인 '부유식 도시'에서는 이티씨블 랭크·이민혜·이혜선·최혜원·박현우가 참여해 바다 위 새로운 삶의 공간과 공동체를 각자의 예술 언어로 풀어낸다. 이혜선은 해양 폐기물을 활용한 설치 작업을 선보인다. 제주와 동해에서 수집한 부표와 어구 등을 금속공예와 조명으로 재탄생시켜 버려진 사물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Tide Totem-유영하는 조각」과 「손등대」 시리즈를 통해 미래 부유식 도시의 건축과 생활 도구를 상상한다.

박현우는 버려진 목재를 연결해 미래 해상도시의 도로를 구현했다. 서로 다른 색과 질감, 상처를 가진 목재들이 하나의 길을 이루는 설치 작품은 기후위기 이후의 도시가 완벽한 설계가 아닌 다양한 역사와 조건이 공존하며 균형을 이루는 공간임을 은유한다. 관람객은 작품 위를 직접 걸으며 나무의 질감과 흔적을 몸으로 느끼고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상상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Part 2. 북극항로가 열어갈 새로운 부산

북극 빙하가 녹으며 새롭게 열리는 북극항로와 그로 인해 변화할 부산 북항의 미래를 조망한다. 프로젝트 그룹 STUDI O1750(김영현·손진희)은 「블루 아워: 개와 늑대의 시간」을 통해 북극 환경의 변화와 그 속에서 진화하는 식물들을 상상력으로 구현했다. 북극항로 개척이 인류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만 북극 생명체에게는 삶의 터전을 잃는 위기라는 점을 함께 제시하며 개발과 환경 사이의 긴장을 이야기한다.

변대용은 오랫동안 작업해 온 북극곰을 소재로 「The Gathering」을 선보인다. 익숙하고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환경 문제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그의 작품은 부산의 미래 전략으로 주목받는 북극항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며,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 밖에도 이은정, 갓고다(권이철·최윤영) 등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해 미래 해양도시 부산의 새로운 풍경과 문화를 각자의 예술 언어로 제안한다.

이번 전시는 부유식 도시와 북극항로 등 미래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 도시가 공존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예술적으로 사유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전시 기간에는 참여 작가와의 대화와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근현대역사관 홈페이지(busan.go.kr/mm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_051)607-8044 / 편집실
사진 제공_부산근현대역사관

1 이혜선_유영하는 조각, 2026

2 이은정_수평선 너머 이어지는 것들, 2026

3 박현우_해상정, 2026





제 37 회 부산 사진대전

2026. 7. 20. ~ 25.

부산광역시시청 전시실



부산사진작가협회(회장 강종관)가 주최 주관한 '제37회 부산사진대전'은 일상과 자연, 사람과 시간을 담아낸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지역 사진작가들의 창작 역량과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이다.

올해는 총 485점이 출품되어 공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특선, 입선 등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대상은 신현숙의 「응시」가 차지했다. 녹슨 철창 사이로 정면을 응시하는 인물의 강렬한 시선은 답답한 현실 속 자유를 갈구하는 인간의 절실한 염원을 담아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철창을 움켜쥔 손과 녹색 두건, 붉은 상의의 색

채 대비는 작품의 긴장감과 메시지를 더욱 극대화하고, 삶의 현실과 인간의 내면을 응축해 보여주며 사진이 기록을 넘어 공감을 전하는 매체임을 보여준다.

최우수상에는 한미숙의 「선을 따라가면 재미없지」가 선정됐다. 하늘을 배경으로 한 검은 언덕과 흰 줄무늬 패턴 위를 자유롭게 달리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모습이 조화로움에 호평을 받았다. 단순한 선과 움직임만으로도 자유와 즐거움을 전하며 평범한 일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우수상은 김홍숙의 「공간」과 김지민의 「정의가 흐르는 강



- 1 신현숙_응시(대상)
- 2 한미숙_선을 따라가면 재미없지(최우수)
- 3 김홍숙_공간(우수상)
- 4 김지민_정의가 흐르는 강물처럼(우수상)



물처럼'이 선정됐다. 「공간」은 천에 수를 놓는 여인의 모습을 쏟아지는 빗줄기와 함께 담아내며, 빛과 그림자가 어우러진 고요한 공간 속에서 노동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정의가 흐르는 강물처럼」은 포트폴리오 작품으로 전쟁의 비참함과 잔혹성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며, '에너지 전쟁의 시작'이라는 문구를 통해 전쟁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담아냈다.

제37회 부산사진대전은 순간을 기록하는 사진을 넘어 인간과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담아낸 전시이다. 삶의 희로애락과 공간의 깊이, 사회와 개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은

사진만이 전할 수 있는 진정성과 울림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는 AI사진, 드론사진, 단사진, 포트폴리오 등 공모 분야를 확대해 작년보다 두 배 이상의 작품이 출품되며 사진예술의 다양한 가능성과 창의성을 확인했다. 관객은 작품 속 타인의 삶과 감정을 마주하며 자신의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 사진작가들의 개성 있는 시선과 실험적인 표현을 통해 부산 사진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하는 뜻깊은 자리로 남았다.

문의_051)631-4111 / 편집실

닷새의 밤, 항구에서 세계로 이어지는 실내악 챔버뮤직페스티벌

2026. 8. 26. ~ 30. 부산문화회관

‘닷새의 밤, 항구에서 세계로 이어지는 실내악FIVE NIGHTS OF INTIMATE CHAMBER MUSIC’을 주제로 열리는 챔버뮤직페스티벌은 부산의 장소성과 문화적 기억에서 출발해 세계의 다양한 음악 언어를 하나의 무대에 담아 5일간 매일 다른 주제와 편성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8월 26일(수) | Wharf & Tango 선창의 그리움과 탱고의 열정
양상블 부산솔로이스츠, 9°odo와 피아니스트 김소형이 함께 무대에 올라 부산을 소재로 한 작곡가 신동일의 세계 초연작 「구포 선창 노래 환상협주곡」을 비롯해 레스피기의 현악 양상블을 선보이며 부산의 오래된 기억과 고풍스러운 현악의 울림을 들려준다. 2부에서는 라인베르거의 9중주, 줄리우 메달리아의 목관5중주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를 통해 부산의 항구성과 남미 탱고의 정서를 하나의 음악으로 연결한다.

8월 27일(목) | The Crossover Rhapsody 크로스오버 랩소디
클래식과 재즈, 탱고, 한국적 풍류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크로스오버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피아니스트 이주현·김성주의 카푸스틴 피아노 포핸즈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색소폰리스트 김진호와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우드에이 색소폰 양상블이 피아졸라와 거슈윈의 작품을 통해 색소폰이 가진 새로운 가능성을 들려준다. 이어 월드뮤직 프로젝트 동백유랑단은 클래식과 국악, 월드뮤직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실내악을 선보인다. 동백유랑단은 비올리스트가 영(영성대학교 교수)을 중심으로, 부산에서 출발해 전국과 세계를 향해 유랑하며 새로운 공연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단체이다. 단순한 장르 융합을 넘어 오늘날 실내악이 다양한 음악과 어떻게 공존하고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로 기대를 모은다.



**8월 28일(금) | Old Resonance, New Ensemble 국악의 결-
오래된 울림, 새로운 앙상블**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이자 부산거문고악회 예술감독인 권은영을 중심으로 거문고와 피아노, 정가가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신민속악회 바디BADI가 동래지신 땃기와 아쟁산조, 판소리, 민속 장단 등을 현대적인 앙상블 언어로 재해석하며 국악을 별도의 장르로 구분하기보다 실 내악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함께 호흡한다.



28일_권은영

8월 29일(토) | Young Brilliance 부산에서 세계로

국제 협업 프로젝트로 벨기에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타티아나 샤무일Tatiana Samouil이 부산을 찾아 부산페스티벌플레이어스, 윈더첼로와 함께 슈베르트의 「송어」, 포퍼의 「콘서트 폴로네이즈」, 멘델스존의 현악 8중주를 통해 정통 실내악의 정수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챔버뮤직페스티벌은 지역 연주자와 실내악 단체를 중심으로 국내외 전문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를 만들고 공연과 교육, 창작과 국제 교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지역 음악 생태계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실내악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산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공연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부산에서 시작된 음악이 세계와 연결되고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호흡하는 대표 실내악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의_051)607-6000 / 편집실

8월 30일(일) | Melody & Rhythm 선율과 리듬의 피날레

듀오 플라레Duo FLARE는 드뷔시, 포레, 쇼팽, 무케, 브리치알디의 작품을 통해 플루트와 하프 특유의 우아하고 투명한 음색을 들려주며, 페이즈퍼커션앙상블Phase Percussion Ensemble은 마림바와 비브라폰, 멀티 퍼커션이 만들어 내는 다채로운 리듬과 에너지로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한다.



30일_듀오 플라레



27일_우드웨이 색소폰 앙상블 단체사진



2026NAC렉처콘서트 BSO 솔로이스츠 실내악

BSO솔로이스츠 실내악 I_현악8중주

2026. 6. 7. ~ 9. 12. 낙동아트센터

낙동아트센터(관장 송필석)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와 손잡고 깊이 있는 해설과 수준 높은 연주를 결합한 실내악 시리즈 <2026 NAC 렉처콘서트>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6월 7일과 14일 낙동아트센터 앙상블극장에서 두 차례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오는 9월 12일에는 현악4중주와 피아노5중주 무대를 통해 관객과 다시 만날 예정이다.

BSO솔로이스츠, 실내악 I_6. 7.(월) 오후 5시 현악6중주&현악8중주

2026NAC렉처콘서트는 정통 유럽 실내악의 아름다움을 쉽고 친근한 해설로 풀어낸 클래식 공연이다. 해설은 음악 평론가 김윤선이 맡아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작곡가의 의도, 감상 포인트를 알기 쉽게 전달했다. 프로그램은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브람스의 「현악6중주 제1번 B♭장조, Op. 18」과 멘델스존의 「현악8중주 E♭장조, Op. 20」로 구성했다. 두 작품은 묵직하고 깊이 있는 서정성과 젊고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가 대비를 이루며 공연의 흐름에 균형감을 더했고, 관객들은 지루할 틈 없이 실내악의 다양한 매력

을 만끽했다.

김윤선 음악평론가는 브람스의 악보가 뻣뻣한 음표로 가득할 만큼 치밀한 구성력을 지녔다는 점을 설명하며, 전형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서정성과 견고한 음악적 구조를 짚었다. 이어 멘델스존에 대해서는 은행가인 아버지 밑에서 유복한 환경 속에 성장하며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고, 요한 볼프강 폰 괴테와의 교류를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키웠다고 소개했다. 또한 16세에 곡을 완성할 만큼 탁월한 작곡 역량을 보여준 일화를 전하며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오케스트라가 대규모 편성과 풍성한 음향으로 감동을 전한다면, 실내악은 유럽 궁정에서 소수의 뛰어난 연주자들이 함께 음악을 나누던 전통에서 비롯된 장르답게 연주자 개인의 기량과 음악적 호흡이 중요하다. 이날 무대에서도 각 연주자의 역량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김주영 악장은 세련된 음색과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앙상블의 중심을 이끌었으며, 비올라의 부드럽고 깊이 있는 음색과 첼로의 묵직한 울림이 균형감을 더했다.

BSO솔로이스츠, 실내악II_6. 14.(일) 오후 5시
목관5중주&금관5중주

공연은 카르멘 모음곡으로 문을 열었다. 목관악기의 포근하고 유연한 음색은 비제의 선율을 한층 따뜻하게 전달했으며, 해설에서는 목관악기가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닮은 악기로 편안하고 친숙한 울림을 전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호른은 둥글게 말린 관을 모두 펼치면 길이가 약 3m에 이른다는 흥미로운 소개를 곁들여 관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연주된 금관악기 5중주는 강렬한 에너지와 해학적인 매력을 바탕으로 다이내믹하면서도 화려한 무대를 선사했다. 프로그램은 「아,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C장조 K.265」를 비롯해 그리브스의 「모차르트의 터키 록 맘보」 「Viva la Vida」 「아일랜드 민요」 「Amazing Grace」 등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친숙한 곡들로 구성됐다.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목관·금관 앙상블의 음색과 매력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배려한 점이 돋보였다.

BSO솔로이스츠, 실내악III_9. 12.(토) 오후 5시
현악4중주&피아노5중주

세 번째 렉처콘서트는 피아니스트 송영민이 해설을 맡아 진행한다. 공연에는 현악4중주와 피아니스트 윤아인이 함께하며 더욱 입체적이고 풍성한 실내악의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쇼스타코비치의 「현악4중주 제8번 c단조, Op.110」과 드보르자크의 「피아노5중주 제2번 A장조, Op.81」로 꾸며진다. 쇼스타코비치의 작품은 전쟁과 억압의 시대를 살아낸 작곡가의 내면을 압축적으로 담아내며, 절망과 저항이 교차하는 비극적 정서와 치밀한 구성 속에서 강렬한 긴장감과 깊은 여운을 전한다. 드보르자크의 작품은 보헤미아 특유의 서정성과 민속적 선율, 따뜻한 화성이 조화를 이루며 풍요롭고 생동감 넘치는 실내악의 매력을 펼쳐 보인다.

문의_051)970-2771 / 편집실



BSO솔로이스츠 실내악II_금관5중주



경주엑스포대공원

2026부산건축가회 춘계건축탐방

경주... 2 천난한 천년의 향기를 찾아서...

2026. 6. 6. 경주

2026년 부산건축가회는 10월에 개최될 대한민국건축문화제와 더불어 '다양체-포용과 회복의 도시'라는 주제로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건축에 대한 방향성을 살피보고자 한다. 올해의 건축탐방 행사 또한 같은 주제 아래 진행하였다.

부산건축가회는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하여 부산과 가까운 도시 신라의 수도 경주를 돌아보며 그 맥락을 연결하고자 하였다. 김민수 건축탐방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두진 회장, 류종우 원로 회원 등 30여 명이 함께 참가했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찬란한 경주의 공간을 거닐었다.

건축탐방 코스는 최근 경주건축상 수상작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천년의 도시 경주의 과거와 현재를 잇고 경주만의 역사와 공간적 특성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우수한 건축물을 탐방하였다. 탐방은 금관총(아사지왕 돌무지땃널무덤), 신라고분정보센터(경주시 2023년 대상), 오아르미술관(2025년 제48회 한국건축가협회상), 국립경주박물관, 테라로사 경주(경주시 2025년 대상), 경주엑스포대공원(경주타워 출거미술관 경주엑스포기념관), 브레스커피웍스(2025년 일반건축 부문 최우수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탐방지는 경주 노서동의 노서리고분군 내 금관총(아사지왕 돌무지땃널무덤)이다. 1921년 발굴되어 신라유물의 대명

사인 화려한 금관 일습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출토되었다. 금관 외에도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국립중앙박물관과 경주 박물관에 분산 보관되어 있고 국보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봉분의 복원 규모는 저부 직경 45m에 높이 12m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금관총에 이어 신라고분정보센터(경주시 2023년 대상)로 동선을 연결하였다. 신라 고분의 모든 정보를 집약한 '지식 타워 플랫폼'으로 단순한 전시관을 넘어 고분의 구조와 발굴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이다. 길이 36m, 높이 4m 규모의 디지털 실감 영상관에는 신라고분 1천 년 이야기 등 4개의 영상 콘텐츠가 상영되고 있었다.

노서리고분군 내 위치한 오아르미술관(2025년 제48회 한국건축가협회상)으로 발길을 옮겼다. 오아르미술관 개관 시간(오전 10시) 전에 도착하여 삼삼오오 모여서 고분과 오아르미술관의 절묘한 조화와 오아르미술관 맞은편 3층 규모의 리모델링된 소규모 숙박시설을 돌아보았다. 건축가와 시공자의 노력을 엿볼 수 있어 모두 일석이조라며 매우 흡족해하였다.

오아르미술관은 메스컴을 통해 유명해진 유현준 건축가(유현준엔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가 설계했으며, 역사적 맥락의 재해석과 시각적 소거와 조화, 이중 박공지붕(Double Gable Roof), 문화적 상징성을 실현한 건축으로 인정받았다. 건축물이 문화재를 가리지 않고 문화재를 가장 큰 전시품으로 만든 건축으로, 경주의 역사성을 현대적 방식으로 재해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오아르미술관을 들어서는 순간 신라의 고분이 펼쳐지고 전시 공간마다 고분과 최영욱 작가의 달항아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최영욱 작가의 달항아리는 완벽하지 않은 형태와 표면의 균열을 사람의 삶과 인연, 시간의 흔적으로 해석하며 오아르미술관의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건축적인 맥락과 상통하였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의 문화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신라역사관, 신라미술관, 월지관, 신라천년보고, 옥외 전시 등 5개의 상설전시관과 특별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신라역사관(본관)과 박물관 마스터플랜은 건축가 이희태(1975년 개관)가 설계해 '한국적 양식의 현대화'를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신라미술관은 건축가 이성관(2002년)이 설계하여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였다. 신라 불교미술을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공간으로 화려한 외관보다 절제된 공간 구성과 안정적인 채광, 높은 층고를 통해 유물의 조형미를 강조한다. 영남권수장고는 건축가 최문규(2019년 완공)가 설계하고 '열린 수장고'를 표방하는 건축물로 알려져 있다.

국립경주박물관의 관람 자체가 신라의 조형미와 정제미를 바탕으로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위대한 신라인의 위상을 체험하는 것이었으며, 한정된 공간에 전시된 많은 유물은 건축가들로부터 증축이 필요함을 느끼게 하였고 동시에 부러움으로 여운을 남겼다.

오전에 많은 건축물과 문화유산을 보느라 점심은 플레이스씨라는 복합문화공간에서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술밥을 소화했다. 전시장을 돌아보는 동안 부산 작가인 이준희의 전시와 세계 유명 작가들의 굿즈들이 눈을 즐겁게 해주었다.



오아르미술관

식사를 마치고 테라로사 경주(경주시 2025년 대상)로 출발하였다. 테라로사 경주는 지역건축가인 전환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하였다. 이곳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한옥의 형태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황남동 고분군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 테라로사 경주는 전통적인 한옥 양식과 현대적인 카페 문화를 결합한 대형 건축물로 문화재 발굴과 인허가 등 약 6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완성되었고, 경주의 역사적 맥락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도시 미관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주시 2025년 대상을 수상하였고, 그에 못지않게 커피의 진한 향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느끼게 하였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은 1998년 세계 최초로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문화박람회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위해 조성된 대규모 문화테마파크이다. 전통 유산과 현대 기술이 결합한 건축 및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는 다양한 전시, 영상, 공연, 체험 문화콘텐츠가 마련되어 있다. 건축가회는 건축적으로 의미 있는 경주타워, 술거미술관, 경주엑스포기념관(살롱헤리티지)을 둘러보았다.



테라로사 경주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공원의 아이콘인 황룡사 9층 목탑을 재해석한 경주타워를 배경으로 단체사진을 촬영하였다. 경주타워가 주는 교훈은 저작권 소송을 통해 12년 만에 건축가 유동룡의 권리를 인정받은, 저작권에 대한 가치를 지켜낸 작품이라는 데도 있다. 경주타워는 전망대로 고인이 된 유동룡(이타미준)의 ‘비움’(움각)으로 디자인되었다. 전망대는 높이 82m, 3층 규모로 2007년 완공되어 공원의 배치와 주변 보문단지를 전망할 수 있고, 신라문화역사관은 신라의 건국신화, 불교전파, 황금문화 등을 모형과 패널로 소개한다.

술거미술관으로 향했다. 술거미술관은 2008년 한국화의 거장 소산 박대성 화백이 작품 기증 의사를 밝히면서 건립이 추진된 이래, 2015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내 아평지 연못가에 완공되었다. 신라시대 화가 술거(率居)의 이름을 따 ‘경주술거미술관’으로 2015년 8월에 문을 열게 되었고,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지원한 최초의 공립미술관이라 한다. 빈자(貧者)의 미학을 실천하는 승효상 건축가가 설계하고 재단법인문화엑스포가 건립을 주도하여 미술관 건물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화이트 큐브(전형적인 폐쇄형 전시장)의 전형성을 탈피하고 ‘시각적 시퀀스(연속적인 풍경의 변화)’와 ‘자연광의 유입’을 시도한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술거미술관에서 경주엑스포기념관(살롱헤리티지)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주타워에서 바라봤을 때 유독 눈에 띄는 건축물로 격자무늬 철구조물을 이용해 고분을 표현한 듯한 노란색(나중에 확인한 결과 황금색) 지붕의 건물이다.

건축계의 거장 쿠마 켄고(Kuma Kengo)가 설계한 하드웨어(기념관 건물)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감각적으로 다루는 소프트웨어(살롱헤리티지 콘텐츠)가 만나 특별한 공간적 특징을 만들어 내고, 경주의 상징인 ‘대릉원(부드러운 능선)’과 동해안의 ‘주상절리’에서 영감을 얻어 건물을 디자인했다. 인위적으로 높이 솟은 건물이 아니라 경주의 완만한 곡선과 지형적 특징을 형태적으로 수용했다고 한다. 외부의 돔 형태 프레임이 내부로 이어져 안팎의 경계를 유기적으로 허무는 구조로 별도의



화려한 마감재를 쓰지 않고 구조 부재를 있는 그대로 노출했으며, 절곡 판재의 격자무늬 프레임과 천창Skylight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극적인 기하학적 미학을 표현하였다.

마지막 탐방지는 브레스커피웍스(2025년 일반건축 부문 최우수상)로 하동저수지(하동지)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위치한다. 기오현 건축사사무소(민현식 건축가)에서 설계하고 5년여의 준비 끝

에 완공되었다. 전통 한옥의 기둥과 보 맞춤 방식을 현대적인 콘크리트 구조와 금속 소재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건물 앞의 인공 연못이 하늘과 맞닿아 보이는 인피니티 풀 형태의 수공간과 건축미가 조화롭다는 극찬을 받았다. 또한 층별 대비를 통한 시각적 시퀀스를 만들었다. 브레스커피웍스는 경주의 자연(물, 돌, 바람)과 전통 건축의 내러티브를 미니멀한 현대 건축 속에 녹여 내며 지형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조경과 건축이 안팎으로 호흡하도록 설계된 수작으로 꼽힌다.

아침 7시 30분부터 12시간 넘게 9개의 건축물을 탐방하고 각각의 작품들을 돌아보면서 시간과 공간은 끊임없이 연결되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 도시를 만들어 가며, 신라 천년의 향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시간 관계상 좀 더 거기에 머물지 못한 게 아쉬운으로 남는다.

글_강영자 단단비건축사사무소 대표



2026
한국궁중꽃박물관
특별기획전

시간을 새기다 展

2026. 7. 1. ~ 12. 31.
한국궁중꽃박물관



황동 송학 문양 반달이_80×40×70cm



한국궁중꽃박물관(관장 최성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금속 표면에 새겨진 세공기법과 다채로운 문양으로 완성된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는 특별기획전 ‘시간을 새기다 展’을 개최한다.

금속공예는 단단한 금속 재료를 섬세한 공정을 거쳐 실용성과 예술성을 함께 구현하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이다. 한국의 금속공예는 청동기 시대부터 축적된 기술과 조형미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으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점차 생활용품, 장신구 등의 분야에서 대중적인 문화유산을 꽃피워 왔다. 특히 국가무형유산으로 전승되는 금속공예 기술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의식을 담아내며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특별기획전에서는 국가유산청 전승공예품 은행 제도를 통해 대여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이수자의 작품 30여 점과 박물관 소장품을 선보이며, 우리 전통 금속공예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그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 매곡동에 있는 한국궁중꽃박물관은 세계 유일무이(唯一無二)한 궁중 꽃 전문박물관으로 국가무형유산 제124호 궁중채화장 황수로 장인이 역사의 기록으로만 남아 있던 조

선왕조 궁중채화를 복원 전시한 곳이다. 현재 고종의 어머니인 신정왕후의 팔순을 기념한 잔치인 ‘고종정해진찬의’를 재현해 조선 궁궐이 화려하고 장엄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궁중채화를 특별기획전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문의_055)362-3661 / 편집실
사진 제공_한국궁중꽃박물관



한국궁중꽃박물관 설립자,
국가무형유산 제124호 궁중채화장 황수로 박사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 확정

범어사 대웅전 건축·불상·벽화,
각각 보물 지정

1

부산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 대웅전 벽화가 지난 6월 26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조선 후기 불교 신앙과 회화 양식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예술적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로써 범어사가 보유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은 국보 1건, 보물 8건, 국가등록문화유산 1건으로 늘었다.

2

범어사 대웅전은 부처의 세계인 불국정토의 원리에 따라 조성된 공간이다. 내·외벽과 포벽, 대량·창방에 이르기까지 별화를 포함한 총 66점의 벽화가 현존한다.

중앙 불단에 봉안된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보물)은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삼세불로 시간의 종축을 형성한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동벽의 약사여래삼존도와 서벽의 아미타여래삼존도는 방위에 대응하는 삼방불로서 공간의 횡축을 이룬다. 이처럼 불상과 벽화, 건축



공간이 하나의 체계로 구성되면서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불교의 우주관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특히 평면 불화가 건축 공간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입체적인 불국정토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범어사 대웅전 벽화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양측 측문 상단의 뒷간 벽에는 동쪽에 관음보살도, 서쪽에 혜가단비도가 배치되어 있다. 달마대사가 관음의 화신이라는 신앙적 배경을 도상으로 풀어낸 혜가단비도와 질병 치유와 재난 구제 등 중생의 염원에 응답하는 자비와 구원의 메시지를 상징하는 관음보살도는 중앙의 본존불과 함께 다양한 불교 신앙 체계를 담아낸다. 특히 백의관음도와 달마 혜가단비도를 서로 마주 보도록 대칭적으로 배치한 사례는 현재까지 범어사 대웅전, 운문사 비로전, 대원사 극락전에서만 확인되는 특징이다.

범어사 대웅전 벽화는 보수 과정에서 개채(改彩)되지 않고 원형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세기 전반 영남 지역 화승 집단의 활동과 영향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범어사 대웅전 벽화는 조선 후기 불교 신앙과 미술이 집약된 상징적인 작품”이라며 “이번 보물 지정으로 범어사 대웅전은 건물과 봉안된 불상, 벽화가 각각 보물로 평가받는 온전한 보물의 전당이 됐다. 그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더욱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_051)508-6139 / 편집실
사진 제공_범어사 성보박물관

1 관음보살도(관음보살과 선재동자) 2 혜가단비도(달마와 혜가)
3 범어사 대웅전 벽화(아미타삼존도) 4 범어사 대웅전 벽화(약사삼존도) 5 범어사 대웅전 벽화



부산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공동 특별기획전

조선의 기록과 문화, 만세萬世에 전하노니

2026. 7. 7. ~ 8. 30. 부산박물관



1

부산박물관(관장 정은우)과 국립고궁박물관(관장 배민성)은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기념하여 8월 30일까지 특별기획전 '조선의 기록과 문화, 만세萬世에 전하노니'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조선 왕조의 기록 정신과 왕실문화 그리고 동래부(현 부산)를 중심으로 펼쳐진 대외 교류의 역사를 함께 조명하는 자리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조선왕조 『의궤』,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조선통신사 기록물 등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실의 기록유산이 소개된다. 《영조 어진》, 《철종 어진》, 《동궐도》, 백자청화 산수화조문 항아리, 백자 달항아리 등 조선 왕실의

권위와 문화를 보여주는 국보와 보물급 유물 등 총 166건 195점(국보 18건, 보물 22건, 국가민속문화유산 12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33건)이 출품된다.

‘1부 기록의 나라, 조선’에서는 조선이 국정 운영과 국가 행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보존했는지 살펴본다. 태종이 말에서 떨어진 뒤 “이 일을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자 왕이 말에서 떨어진 사실과 그 명령까지 그대로 실록에 적어버린 사건처럼, 국왕의 언행, 조정의 논의, 지방 관청의 업무 보고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정 과정을 치밀하게 문자로 남긴 방대한 기록들이다.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472년간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담은 기록이고, 『승정원

일기』는 국왕의 비서 기관인 승정원에서 매일의 국정 전반을 상세히 기록한 일기이며, 『일성록』은 국왕이 주요 국정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편찬한 기록이다.

‘2부 조선 왕실의 상징과 품격’은 왕실의 권위와 예술적 품격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을 소개한다. 한국전쟁을 피해 부산으로 피난 온 유물을 보관하던 용두산 창고에 일어난 대형 화재로 절반이 불에 탄 철종 어진이 72년 만에 다시 부산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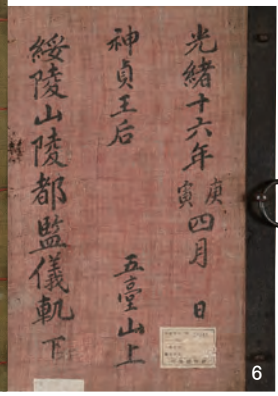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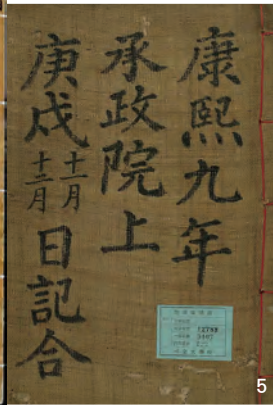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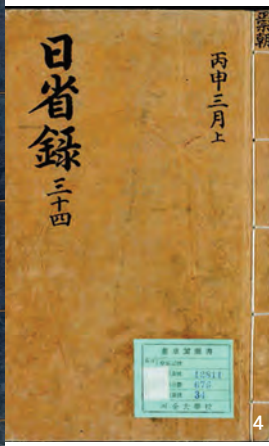
‘3부 조선의 창窓, 동래부東萊府’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 성신誠信으로 교류했던 중심 무대인 동래부의 역사적 위상을 조명하고,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통해 평화 교류의 역사를 선보인다. 동래부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초량왜관도, 조선통신사 행렬도, 통신사 수행화원 이의양이 그린 산수화와 11차 조선통신사 사행 때 에도막부가 조선 국왕에게 보낸 금병풍도 포함된다.

조선은 전란과 화재 등에 대비해 실록을 정족산·태백산·오대산·적상산 등 여러 사고史庫에 나누어 보관하는 보존 체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임진왜란 때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한 4곳 중 3곳이 소실되고, 이후 남은 1곳의 실록을 바탕으로 다시 제작해 나누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실록 편찬과 보존의 역사를 4대 사고본을 통해 사상 최초로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문의_051)610-7111 / 편집실
사진 제공_부산박물관



- 1 영조가 정조에게 내리는 효손 은인과 함
은인 보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2 철종 임금 초상_보물
- 3 조선왕조실록_국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4 일성록_국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5 승정원일기_국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6 조선왕조 의례_보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1

북천박물관 30주년 특별교류전

고분의
기억
오늘을
빛

2026. 5. 22. ~ 8. 17. 북천박물관

개관 30주년을 맞은 북천박물관(관장 성원주)은 고대 유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역사와 예술을 잇는 특별한 전시를 마련했다.

부산대학교 조형학과 김현숙 교수가 기획하고 조형예술연구소와 협업한 이번 전시는 부산 도심 속 고대 분묘 유적인 북천동 고분군(사적 제273호) 출토 유물을 현대 도예로 재해석해 지역 문화유산의 고고학적 가치와 현대 예술의 조형미를 함께 조명한다. 또한 원통형 그릇받침, 굽다리접시, 신발모양 토기, 오리모양 토기 등 북천동 고분군을 대표하는 토기를 비롯해 금동관, 판갑, 칠두령 등 주요 유물을 모티브로 제작한 도예 작품들이 소개된다. 고대 가야인의 삶과 죽음, 권위와 신앙을 담은 유물의 상징성을 현대 도예가들의 창의적인 시각과 조형 언어로 풀어내며 문화유산을 현대 예술의 시각으로 새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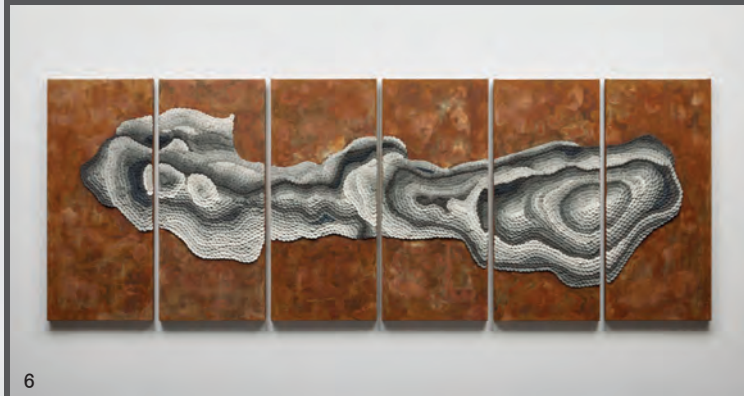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는 단국대학교, 부산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에서 교육과 창작을 병행하는 교수진과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중견·신진 도예작가 15인이 참여한다. 특히 서울여자대학교 박종진 교수는 지난 5월 세계 최

고 권위의 공예상인 로에베 재단 공예상(LOEWE FOUNDATION Craft Prize)에서 2026년 최종 우승자로 선정되며 한국 도예계의 위상을 높여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분의 기억, 오늘을 빛다’는 문화유산을 단순한 학습의 대상이 아닌, 현대 예술을 통해 새롭게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로 확장한 전시이다. 북천박물관이 보유한 역사문화 자산과 현대 공예미술의 창작 역량이 만나 지역 대학과 공공박물관의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고대 가야 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만나고 도예 작가들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문화유산이 지닌 또 다른 가능성과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을 선사한다.

관람객들이 전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가야토기’와 ‘도자의 변신’을 주제로 특별초청강연과 초·중·고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공예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북천박물관 홈페이지(<https://museum.busan.go.kr/bokcheon/index>)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_051)550-0334 / 편집실



1 이정용_백자관문 주자 2 심현성_Memory Fragments
3 박종진_Artistic Stratum 4 최지만_21세기 황아리와 기대
5 김명선_내면의 길 6 최설지_녹슬지 않는 나라

범천 소공인 특화 지원을 위한 ‘시 마케팅 전문가 과정’ 특강

2026. 6. 15. ~ 23.
부산예술회관 회의실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회장 강종관)가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산학단장 김성희 대외부총장)의 부산 범천 가죽·가방·신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센터장 서근하)와 함께 지역 산업과 예술의 접점을 넓히는 협업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관내 범천 집적지 내에 있는 소공인 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5~16일(10시간), 22~23일(10시간) 2회에 걸쳐 부산예술회관 4층 회의실에서 ‘시 사진·동영상·유투브 마케팅 전문가 과정 교육’으로 진행됐다.

해당 교육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지역 신발·가방 소공인들의 온라인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 소속 사진작가들이 강사로 참여했으며, 제품 촬영을 위한 상업 사진 기법과 스마트폰 촬영 노하우를 전수했다. 교육과정으로는 수제화와 가방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담아내는 조명 활용법부터 구도 연출, AI 기반 영상 편집과 유튜브 콘텐츠 제작까지 실습 중심 교육이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자신의 제품을 직접 촬영하고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특히 오랜 기간 제조 현장에서 활동해 온 소공인들이 사진과 영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1대1 맞춤형 실습을 병행해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양 기관은 추후에 ‘메모리얼 미래유산 아카이브’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범천동 신발·가방 제조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지역 산업의 역사와 장인 기술을 디지털 자산으로 축적하는 프로젝트다.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는 전문 사진작가들의 시선으로 제작한 기록물을 통해 제품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의 문화적 가치와 장인정신을 보존하는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범천동 산업 현장의 기록을 미래세대에 전할 수 있는 시각 자료로 남긴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사진예술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적 가치를 확장하는 공공적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문의_051)890-2335 / 편집실

부산 전통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잇다

제50회 부산동래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성료

2026. 6. 20. ~ 21. 부산민속예술관



부산광역시(시장 전재수)와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이사장 김익현)가 주최·주관한 '제50회 부산동래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는 전통기악과 전통무용 종목에서 중고등부·신인부·일반부·명인부 등 4개 부문, 총 73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참가자들은 오랜 시간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예술 경연대회의 위상을 이어갔다.

명인부에서는 부산시 무형유산 동래학춤을 선보인 류권홍(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동래학춤 특유의 절제된 춤사위와 깊이 있는 표현력으로 무대의 완성도를 높이며 심사위원과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김병호류 가야금산조를 연주한 박다현

(부산가야금연주단 단원)에게 돌아갔다. 전통 산조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연주와 섬세한 표현력이 돋보였으며 깊이 있는 음악성으로 높은 평가를 이끌었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세대의 전통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통예술의 가치와 계승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지역 전통예술의 저변을 넓히고 미래 예술인을 발굴하는 무대로 의미를 더했다. 50회를 맞은 부산동래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는 오랜 세월 전통예술의 중심지로 이어온 동래의 역사와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무대로 앞으로 전통예술의 지속적인 계승과 발전을 이끄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_051)555-0092 / 편집실





이끼

글 사진_이영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교육편집간사장





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이끼는 그 흐름 위에 조용히 시간을 쌓아간다.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은 흔적을 남기지 못하지만
천천히 스며드는 것들은 결국 풍경이 된다.

숏폼

어제 밤잠을 제대로 못 자서 피로하네요. 재미있는 숏폼을 보다 보니 새벽 나절까지 잠을 설쳤어요. 청년도 아닌데 아직 감성이 살아 있나 봐요. 가슴 두근대는 장면이 많았어요.

우선 숏폼이 무슨 뜻인지부터 설명해야겠네요. 우리말로 하면 단막극이라고 합니다. 두 시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드라마의 기승전결을 전부 보여주는 극입니다. 요즘 중국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다루는 이야기와 연출이 중독성이 강합니다. 주로 막장극이라고 불리는 불륜과 배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드라마 장르 중 가장 오래되고 팬층이 두터운 극이 무엇인지 아세요? 영웅 서사나 로맨스 극이 아닙니다. 막장극이 가장 오래되고 대중들의 인기를 끌었던 전통 이야기 형식입니다. 그리스 희



곡을 보아도 그래요. 애인과 결탁하여 남편을 죽인 ‘카산드라’, 배신한 남편을 저주하며 자식을 죽인 ‘메데이아’… 이 외에도 무수히 많죠. 불륜과 배신은 인간 본성의 원형질이 아닌가 합니다.

솫폼은 그 이야기의 원형을 가장 자극적인 연출과 연기로 각색하여 영상을 제공합니다. 저 역시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보게 되었는데, 몰입되어 잠을 설쳤어요. 막장극에는 고전부터 형성된 클리셰가 있어요. 기본형은 이래요. 첫째, 남녀 연인이 있습니다. 둘째, 그 중의 한 사람이 배신합니다. 셋째, 그 배신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백월광이 있습니다. 백월광이란 여자 혹은 남자의 애인 역할을 하는 갈등의 조성자를 지칭하는 은어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에 나오는 이아고가 그 전형이죠. 오셀로는 무어인 장군이고 데스테모나는 그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이 둘 사이를 이아고가 온갖 계락을 써서 비극으로 만듭니다. 솫폼 드라마는 이 공식을 충실히 따르면서 극의 재미를 높입니다. 이 구성을 해부해 보면 밑바탕에는 신뢰와 의심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뢰를 흔들어 의심을 깨우고, 그 의심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과정이 인간 비극의 본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무얼 보았는가 하면 솫폼으로는 드물게 부부간의 갈등이 화해의 가능성을 남긴 드라마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파국으로 끝나는 결말을 보여주는데요. 이 드라마는 특이하게도 용서와 화해의 문을 열어둡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애가 있기에 마음이 더 끌렸습니다.

이 드라마의 시작은 사랑하던 부부간의 갈등으로 시작합니다. 전형적인 이야기의 전개 구조죠. 마치 오디세우스가 에게해를 향해 돛을 올리듯이 인생의 항로는 시작되지만 그의 고향인 이타카로 향하는 항로는 위험으로 가득했듯이, 사랑에는 언제나 그를 위협하는 오만과 편견 그리고 의심이 가득하게 마련입니다. 이 드라마상 부부간의 문제는 권력관계의 역전이였어요.

부부간의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밖에서 돈을 벌어

오는 일과 가사 노동의 가치는 같다고 하지만, 실제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배하지 못하는 권력은 권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은 명백히 물질적 소유권과 사용권을 갖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 노동으로 어떤 가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나요? 가사 노동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타인의 지배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역지로 가치를 부여한다면 사랑과 헌신의 가족애라고 하겠지만, 명백히 측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남성우위의 역사가 오랜 시간 지속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 본 솫폼 드라마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경제 권력의 역전이 남녀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는 시사점을 줍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변호사인 여자와 가정주부인 남자의 지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주느냐? 하는 관찰입니다. 막장극답게 과장과 패러디, 조롱과 모욕으로 관객의 감정에 깊은 상처를 주는 작업부터 보여줍니다. 사회적으로 유명 로펌의 톱 변호사로 성장한 여자는 가정에서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한 남자에 대해 환멸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무려 5년의 연애 기간과 5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 온 사랑하는 부부였지만, 시간과 사회적 지위의 변천에 따라 여자는 남자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 변호사가 여자의 백월광으로 등장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집니다.

이러한 형태의 솫폼극을 이해하려면 현대 중국의 사회 현상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1자녀 갖기 운동’을 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무척 활발해졌습니다. 고등교육 받은 여성도 많고, 지적 배경이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이 많아서 돈 벌어오는 일은 여자가 맡고 가정 살림은 남자가 전담하는 일이 이상하지 않은 사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공감대 우선순위에 있어 가정과 개인의 행복이 사회적 출세보다 우선이라는 남성의 소극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이 결과로 경제

권이나 사회적 우월권을 가진 여성이 남성을 가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페미니즘의 잔인성이 나타납니다. 여성이 남성을 가해하여도 남성으로서 너그럽게 이해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단골 대사가 막장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 내가 친한 남자 친구를 위하여 스킨십을 했다고 해서 불륜으로 모는 거야? 너는 남자로서 이 정도의 도량도 없어? 속 좁은 남자 같으니라고!”

여기서 여자의 이중 잣대가 나타납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제도하에서 남자의 여성 보호본능을 자극하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는 주장입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은 상호 모순되지만, 불균형한 권력관계에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수인할 수 있을 정도의 희생을 하였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 사례는 전통 사회에서의 남권 지배 체제 하에서 용인되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전통 사회에서 남성은 가주로서 집안의 모든 의사결정을 행하였습니다. 당연히 여성에 대한 전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였고, 피해를 수인시켰습니다. 그 권력의 행방이 현대 21세기에 이르러 전환되었습니다. 도덕적 정당성이란 권력의 발현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현대 21세기에 여권주의가 나타났다고 하여 반윤리성으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성 영웅주의 드라마를 대중이 환호한다고 하여 시대가 비도덕적임을 개탄함은 가부장적 남권 우월주의자라는 비판을 역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계급의 역전에 의한 가해와 피해, 이 사회적 현상은 여자에게 다른 혼란을 일으킵니다. 경제 권력을 쥔 여성은 남성에게서 종전의 가부장적 질서 체계 내에 있던 남성 권력을 자신의 세계 질서 내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드라마 작가의 장면 연출로 그 의도를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여자는 처음에 남자가 자신의 재능을 포기하고 가정에 헌신

한 데 대하여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자신의 출세에 어울리는 남성을 찾는 욕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대상이 백월광 즉 남성 애인입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식 사유에 의하면 여성의 본능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강한 남성을 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 생물학적 본능성이 희생과 헌신으로 상징되는 남편을 배신하고 애인을 찾는 방향으로 욕망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작가 역시 그 방향으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헌신한 남편에게 여자는 일반적으로 감정적 학대를 가합니다. 여기에 견디지 못한 남성이 가정을 탈출하는 장면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이후에는 남성의 복수극이 일반적인 스펀트의 진행 방식입니다. 배신과 복수가 불륜극의 공식이거든요. 원한과 복수,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서부극과 같은 뻔한 스토리 전개를 이 드라마는 한 번 비틀니다. 남자가 떠난 순간부터 그의 부재가 여자에게 아프게 다가옵니다. 백월광이 줄 수 있는 속물적 쾌락은 파편처럼 부서져서 끊임없이 감정을 소모시키지만, 헌신과 믿음이 주는 안정감은 그녀를 안식으로 이끈다는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이 차이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순결하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이러한 참고 견디는 덕목들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변화하는 감정을 안정시키는 영원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변화하지 않고, 느끼는 감정 속에서 변화합니다. 그 변화를 영원으로 이끄는 에너지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욕망의 완성이 인간의 행복을 의미하지 않고, 욕망의 부재가 행복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과를 끝내고 가정에 돌아와 편안한 일상 속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 사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자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중반부 전개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여자의 모욕을 백 번 참은 남자가 이혼장을 써서 제출해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 순간 여자의 또 한 번 이기주의가 나타납니다. 남자



가 자신을 떠났다고 느낀 순간, 그녀는 자신을 아끼는 유일한 사람은 남편 뿐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남주를 쫓아다니며 연애도 못하게 막아 버립니다. 그러다 파국이 되는 게 일반적인 막장의 정석인데... 이 드라마에서는 부부애의 기회를 줍니다. 여자가 마침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변호사로서의 화려한 경력을 포기하고 남성이 시골로 가는 비행기에 함께 탑니다. 그리고 둘은 결혼 이후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합니다. 여기에서 남성은 마지막 기회를 여성에게 줍니다. 만일 오늘 해 질 때까지 자신이 있는 곳을 발견하여 찾아오면 다시 여주를 받아들이겠다고... 아니면 둘 사이의 인연은 사라진다고. 이 제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자가 남편인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자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남자를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사랑에 관해 묻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원에 기술을 개발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원예시험장에 부임하는 길이거든요. 이때 여주는 이 시험이 자

신과 남편을 잇는 마지막 기회임을 깨닫습니다. 남주가 비행장에서 내려 어디론가 가버리고 여주는 남주를 추억합니다. 이때까지 자신만의 사회 경력을 위해 무시했던 남편과의 10년간 추억을... 해는 지고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던 여주가 포기하려던 순간, 갑자기 영감이 떠오릅니다. 남편이 진정으로 좋아했던 일은 식물을 키우는 일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해 떨어지는 순간, 그녀는 원예시험장에 들어섭니다.

이 드라마는 여기에서 끝입니다.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권력이 누군가에게 지배자의 힘으로 행사될 때, 사랑은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느낍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빛은 사물 뒤로 숨어 버립니다. 사랑은 권력에 있지 않고 욕망에 있지 않고 헌신에 있지 않고 믿음 속에 있습니다.

클.김창균 수필가



질문을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예술가 안무가 박지현

- 부산시립무용단 비상임 단원 역임
- 제35회 부산무용제 <빈:호흡> 안무상 수상
- 제35회 전국무용제 제주예선전
<7. L. 부리(한글의 얼굴 춤추다)> 조안무
- 2024 한국문화창작어워드 Korea Cultural Creatives Award
무용수 부문 최우수상 수상
- 전국 수리 무용 콩쿠르 일반부 개인 은상 수상

제35회 부산무용제에서 <빈:호흡>으로 안무상을 받은 박지현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안무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임으로 풀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품고 무용수들과 호흡을 맞추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다. 그는 자신을 동시대를 살아가며 마주하는 질문을 움직임으로 풀어내는 안무가라고 소개한다.

박지현 안무가는 “춤은 어느 순간부터 일상이 되었다”고 말한다. 대단하게 뭔가를 이뤄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 녹아있는 것. 좋아하는 일로 하루를 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낀다. 생각이 많은 편이지만 해결되지 않는 고민에 머물기보다는 그 순간의 연습에 집중하고 러닝이나 등산으로 걱정을 흘려보낸다. 그렇게 비워낸 공간에는 힘의 원천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에너지를 채워 다시 무대 위에 오른다.

무용은 우연한 계기로 시작했다. 또래보다 큰 키 덕분에 중학교 3학년 때 무용을 권유받았다. 남들보다 조금 늦은 시기였지만 막연하게 하고 싶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과감히 무용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배우는 과정은 즐거웠지만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았다. 늦게 시작한 만큼 춤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커 콩쿠르 대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력을 키우고자 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콩쿠르를 준비했고 수상을 목표로 반복한 세월이 4년 가까이다. 그 시간을 온전히 쏟아낸 끝에 지금의 자신을 만든 과정이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비로소 콩쿠르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후에는 무용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무용으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새물결춤작가전>에는 무용수이자 안무가로, 부산시립무용단 비상임 단원으로도 활동했다. 새로운 경험들은 안무가로서 시야를 넓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며 무용수·안무가로서 자신의 시선과 표현 방식을 조금씩 넓히며 작품 세계를 다져갔다.

박지현은 작품을 구상할 때마다 관객의 공감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춤은 언어 대신 움직임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예술이기에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직관적인 움직임과 유치함의 경계, 감각적인 표현과 대중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고민하며, 새로운 안무를 창작하기보다 작품을 깊이 이해하고 설득력 있게 무대로 구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이를 위해 연출부터 무대구성, 관객과의 소통까지 세심하게 고민한다. 관객의 몰입을 위해 동이 트기 전 겨울 바다에 직접 들어가 무대 연출 영상을 촬영한 적도 있다. 이해와 설득을 넘어 공감에 닿기 위해 다방면으로 작품을 다듬는다.

올해는 무엇보다 안무가로서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제35회 부산무용제 <빈:호흡>으로 안무상을 수상했다. <빈:호흡>은 저마다 다른 감정과 삶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출발한 작품이다. 보이지 않는 감정의 호흡을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숨을 비워내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숨을 인식하는 순간을 담아냈다.

작품을 구상하고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무용수들과의 호흡이었다. 더 좋은 안무를 고민하는 것만큼 무용수들이 작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의 호흡으로 무대를 완성하는 데 에너지를 쏟았다. 공연을 본 관객들은 “무용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 느껴졌다”, “30분이 넘는 공연인데도 지루하지 않았다”는 반응을 전했다. 관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알아봐 준 것 같아 뿌듯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안무상은 그동안 쌓아온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해 더욱 뜻깊게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안무가가 계속 작품을 만들고 무대에 오르는 이유는 순수한 기쁨 때문이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무대 위에 오를 땐 설렘이 앞선다. 특히 안무는

자신의 삶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다. 일상에서 마주한 생각과 강렬한 감정 속에서 질문을 발견하고 이를 움직임으로 풀어낸다. 직접 만든 안무로 무대 위를 온몸으로 채우다 보면 심장이 터질 것처럼 힘들지만, 비로소 무대와 하나가 되었음을 느끼는 순간 가장 큰 충만함을 느낀다.

주로 활동하는 부산은 그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무대다. 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면서 무엇보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대를 가까이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큰 의미다. 다만 무대에 오르고 싶은 예술인에 비해 공연 기회가 많지 않은 현실은 아쉽지만 그만큼 스스로 무대를 만들어 가려 한다. 현재는 함께 활동하는 [위오 댄스 프로젝트 W.i.o Dance Project]와 더 많은 공연을 선보이는 것이 목표이며, 부산에도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연습하고 꾸준히 무대에 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달에는 국립부산국악원 ‘2026 영남춤축제 한국춤 거리공연’에 선정돼 무대에 오른다. 한국적인 정서인 ‘흥’에 전통과 대중적인 요소를 가미한 <흥, 블루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중적이고 흥미로운 작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싶다는 그의 바람처럼, 질문을 움직임으로 풀어내는 박지현 안무가의 다음 무대가 더욱 기대된다.

글_유다정 다정한세계 출판사 대표



공연이 끝나면 객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진다. 누군가는 박수를 보내고 누군가는 그 박수를 받는다. 대학을 졸업하고 우연히 한 편의 연극을 본 김숙경은 문득 자신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박수가 오간 짧은 순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연극의 길로 이끌기에 충분했다.

스토리 있는 글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 아래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다. 김숙경 앞에 놓인 길 가운데 하나는 연극이었고 다른 하나는 영화였다. 고민 끝에 그가 선택한 것은 연극이었다. 당시에는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라면 어떤 매체든 상관없다는 마음이 더 컸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연극만의 매력이 또렷해졌다. 영화나 드라마는 제작비나 흥행 성적, 시청률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연극은 관객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며 유행에 휩쓸리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다. 김숙경은 시간이 지나면서 연극이야말로 자신의 창작 방식과 잘 어울리는 예술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연극 공부에 대한 흥미는 나날이 깊어졌고 자연스럽게 박사 과정까지 이어졌다. 오랜 시간 배움에 몰두했지만 어느 순간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지?” 그 질문 끝에 다시 떠오른 것은 처음 연극을 선택했던 이유와 다르지 않았다. 결국 자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글’이었다.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창작의 현장에 뛰어들었고, 그렇게 시작한 도전은 어느덧 12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극단 [문화판 모이라]를 운영하며 극작과 연출을 맡고 있다. 작품 하나를 만들 때마다 하나의 세계를 완성한다는 마음으로 무대를 채워나간다.



무대 위에 질문을 남기다

연출가, 연극작가 김숙경

-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연극 전공)
- 문화판 모이라 상임연출(2014~)
- 2025 제63회 K-Theater Awards 베스트 예술인상 작가상
올해의 Best 3 <태양 아래 널브러진 개>
- 2024 올해의 연극인상, 올해의 Best 3 <슬픔이 찬란한 이유>
- 2022 제4회 아름다운 연극상
- 2021 제12회 전국창작희곡공모전 대상 <슬픔이 찬란한 이유>
- 2015 김문홍 희곡상 수상 <거기, 두루마일이 있다>
- 대표작
2026 <활짝배기와 히말라야>, 2025 <태양 아래 널브러진 개>,
2024 <슬픔이 찬란한 이유>, 2022 <목대평으로부터>,
2018 <119 옆 낙원빌딩>, 2016 <세상에 하나뿐인 부동산>,
2015 <거기 두루마일이 있다>, 2000 <월드 브라더미싱> 외 다수

그렇게 이어진 창작은 자연스레 김숙경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었다. 그의 작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사람을 관찰하는 창작자라는 인상이 먼저 다가온다. 작품 속에는 인간이라면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관계·슬픔·죽음·용서와 같은 감정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이야기를 통해 정답을 말하기보다 관객에게 화두를 건넨다. 그녀의 작품 세계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연극은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의 작품이 많았다. 배운 토대로 작업을 이어가다 보니 주변 사람에게 “연극 보러 오세요”라는 말을 쉽게 건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한다. 당시의 ‘연극 다움’과 자신이 만들고 싶은 연극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적어도 가까운 이들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작품, 내가 하고 싶은 연극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대중성과 관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극작 초반에는 하고 싶은 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가 관객에게 어떻게 닿았는지, 공연을 보고 어떤 마음으로 극장을 나서는지가 더 궁금해졌다고 한다. 그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을 넘어 관객과 함께 완성해 가는 창작자에 더 가까워졌다.

삶은 생각보다 평면적이지도, 직선적이지도 않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마음에 걸리고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순간들이 생긴다. 김숙경에게 그런 순간들은 자연스럽게 창작의 출발점이 된다.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어떤 과정을 거쳐 결론에 이르렀을까?”와 같은 물음이 늘 곁에 따라다녔다. 떠오른 생각을 노트에 적어두고 쉽게 흘려보내지 않는 채 오래 곱씹는다. 그렇게 쌓인 기록들은 어느 순간 하나의 작품이 되어, 지난 12년 동안 8편의 레퍼토리로 이어졌다.

질문은 무대 위 인물로 이어진다. 작품 속 인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마주했을 법한 평범한 사람들이다. 거창한 사건보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감정과 관계의 미세한 변화를 오래 바라보고 촘촘하게 들여다본다. 선과 악이 분명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기보다는 그 안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마음과 선택에 주목한다. 여기에 한국적인 해학과 유머를 더해 관객이 웃고 공감하며 인물을 이해할 수 있는 무대를 완성한다.

관객들이 공연을 보고 극장을 나설 때 하나의 선명한 감정을 안고 돌아가는 것보다 마음 한편에 작은 충만함이 남기를 바란다. 장면의 기억보다 공연을 본 뒤 저마다의 질문과 생각을 품고 돌아가는 관객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작가는 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다’ 이 문장처럼 김숙경은 관객이 자신의 의도를 맞히려 하기보다 작품을 통해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저마다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의 연극 철학처럼.

김숙경은 작품을 쓰면서 단 한 번도 확신을 가져본 적이 없이 늘 불안하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글을 써왔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술가는 불안과 불확실성을 견뎌야 한다”는 문장을 만났다. 그 이후 완성된 건물을 한 번에 세우려 하기보다 주춧돌을 하나씩 놓으며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라 끝까지 써 내려가는 일이었다.

삶은 오늘도 새로운 물음을 던진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에피소드가 태어난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 역시 새로운 소재를 가져다줄 것이다. 그 물음이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이어질지 기대된다고 말하는 그녀의 표정에는 다음 무대를 향한 창작자의 설렘이 묻어났다. 공연이 끝나고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질 때, 김숙경은 또 다른 질문을 무대 위에 남겨둘 것이다.

글_이선

리얼리즘을 탈피한
사진작가
그리고 시인

주철민

-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 한국사진작가협회 김해지부장 역임
-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지회장 역임
- 포토클럽영사회 고문
- 부산남사회 지도고문
- 부산남구문화원 이사
- 부산시인협회 회원 / 남구문인회 이사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모두 카메라를 소지하고 다닌다. 휴대폰에 화소Pixel¹⁾가 높은 디지털카메라가 탑재되면서부터 마음에 드는 피사체가 보이면 과감하게 앵글을 틀이대고 셔터를 누른다. 그리고 그들만의 넘치는 개성으로 사진첩을 채워간다. 또한 사진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서 소개(전시) 또는 자랑거리가 된다. 오늘날 사진은 자기소개서이자 showing의 도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진작가는 언제 셔터를 누를까? 현실을 담아내어 기록하는 사진의 순기능을 초월하여 새롭게 승화시키는 주철민 작가(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 원로작가)가 걸어온 길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권(권오혁) 어떠한 계기로 사진작가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주(주철민) 경남 거제시 상문동이 제 고향입니다. 1945년 7월 25일에 출생한 해방둥이입니다.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은 서울로 진학하였습니다. 이후 영장이 나와서 휴학하고 입대를 하였습니다. 논산 훈련소로 갔는데 대학 재학생은 앞으로 나오라는 말에 1,000명 정도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큰 강당에서 시험을 쳤고 상위 100명에 뽑혔습니다. 그중 50명은 카투사로 차출되어 갔습니다. 그 바람에 저도 카투사로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단어를 열심히 외워가며 군복무를 했습니다. 우연히 모범 카투사로 선발되어 부상으로 폐추리7S 카메라를 선물 받았습니다. 미8군에서도 근무하였지만, 대부분의 군복무를 관악산 밑에서 하였습니다. 주말은 외출이 가능했기에 카메라를 들고 산과 들, 시골 장터로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8군에 가면 흑백사진으로 인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인화도 해보면서 사진에 취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사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권 부산에서 사진학원을 운영했다고 들었습니다.

주 서울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사진 활동을 하다가 서



011

울 환경이 맞지 않아서 고향과 인접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인 거제를 떠나 주로 부산에서 생활을 오랫동안 하였고, 가족들이 부산에 많이 살고 있었기에 저에게 부산은 낯설지 않았습니니다. 부산에 내려와서 보니 사진을 가르치는 학원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진작가도 아니었음에도 부산에 사진학원을 차려서 후배를 양성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75년도 8월에 '부산사진예술학원'을 오픈하였습니다. 위치는 옛날 대한극장 맞은편입니다. 지방에서는 최초의 사진학원이었습니다. 2010년까지 학원을 운영하였는데, 부산의 사진작가 1/3이상이 우리 학원 출신입니다.

학원을 운영할 때 학생들이 밤을 새워서 하며 전시에 출품할 사진을 직접 인화도 하였습니다. 90년대는 고등학교에 사진동아리가 있어서 동래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학생들도 사진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 학원에서 사진을 직접 인화해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카메라가 나오면서부터 학원이 침체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학원 수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디지털카메라 수업으로 다시 사진 수업을 시작하

collage86AS



게 되었는데, 이 수업은 학원이 아니라 ‘서구복지관’과 ‘남구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진예술인으로 남구문화원의 이사로 등록되어 다양한 연구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75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50년 가까이 사진을 가르치면서 사진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 사진작가에서 시인이 되기까지는 어떠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주 교육자 집안의 영향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형들은 학교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한시(漢詩)를 쓰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만장(輓章²⁾)을 적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접하면서 저는 사진으로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 우물을 파야 한다’라고 생각했기에 한시 쓰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비록 사진으로 전향했지만, 저희 집안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시인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작은형은 서예가이면서 시인이

고, 여동생(주순보 작가)도 문학가이며, 현재 부산문인협회 부회장입니다.

고향은 아름다운 폭포수가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곳에 시비(詩碑³⁾)를 세워보자고 형이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거제시청과의 연계사업으로 저희 형제를 비롯한 부산의 많은 시인들이 폭포수 길을 따라 시비를 세웠습니다. 저도 글을 쓰고 시를 쓸 수 있었지만, 사진작가로서는 참여할 수 없고 무조건 시인이 되어야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의 고향에 시비를 세우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진 수업을 일절 할 수 없게 되자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시를 쓰고 발표하면서 문학 작가가 되었습니다. 시인의 자격을 갖추고서야 비로소 저도 고향에 시비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 참으로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이 된 이후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주 제가 서구복지관, 남구문화원에서 수업하니까 배우러 오시는 분이 보통 60대 이상입니다. 사진도 예술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사진작가로서의 도전을 하시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진 배우기를 취미로만 생각하며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시인에 도전하여 그 결과물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학생 중 ‘김상문(85)씨’가 계셨는데, 제가

김 사장님께 “사진은 취미로만 하세요”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전 끝에 시인이 된 것을 보시고 동기 부여가 되어 이분도 사진작가로 도전해 2년 뒤에 사진작가가 되었습니다. 이후 저와 함께 단체전에 전시하신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을 취미로 즐기시라는 조언을 했던 제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취미로만 머물지 않고 언제든 도전하려고 권합니다.

권 작가님의 사진은 예전과 지금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주 사진은 눈과 손으로 찍는 것이 아닙니다. 발로 찍는 것입니다. 많이 다녀야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 활동은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진은 기록입니다. 기록에서 시작해 예술에 이르게 됩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세계적인 사진작가로는 최민식 선생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진을 리얼리즘으로 많이 찍으셨습니다. 자갈치시장을 자신의 스튜디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현실과 부딪히면서 생활해야만 진실한 이미지의 리얼리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동감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진이 말하는 기록입니다. 사진은 리얼리즘에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리얼리티를 담는 기록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기록에서 더욱 발전하여 새로운 기법으로의 표현, 사상과 감정, 철학을 담아내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진 속에 깊이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AI시대를 맞아 사진예술도 그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AI는 리얼리티에 삭제 또는 추가 작업을 더해 가상의 결과물을 손쉽게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는 리얼리티에 타격을 주기도 하지만 새로움으로써의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에서도 사진의 기술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AI교육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진예술의 세계적인 변화추세를 따라가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으러 혼자 다니지 않고 학생들과 함께 현장에 나갑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생과 똑같은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색다른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선생으로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제시해야 하므로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각도에서 사물을 보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지금은 포토샵 등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얼리즘에서 출발하였지만 이를 탈피하여 후작업을 거치면서 새로움으로 승화시킨 것이 지금의 제 작품입니다.

권 부산사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 사진 인구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사진을 찍지만 작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젊은 예술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문화를 받아들이고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앞으로도 후학을 더 열심히 양성할 것이고 후배의 걸음에 밑거름이 되고 싶습니다.

권 작가님의 사진세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육자 마인드이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후학양성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글_권오혁 아티멘션 대표

-
- 1) 영상이나 사진에서 화면의 최소 면적
 - 2) 죽은 사람을 애도하여 지은 글을 천이나 종이에 적어 깃발처럼 만든 것
 - 3) 시를 새긴 비석

No. 55

종이컵

조현숙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고

종이컵을 버리려다

테두리의 입술 자국을 본다

단 한 번 내 갈증을 죽이려

먼 데서 여기로 와

주저 없이 목숨 던진 그를 보며

나에게 묻는다

꼭 마른 누군가를 위해 너는

한 번이라도 몸 던진 적 있었는지

작가노트 | 참나를 살아도 제 사명을 다한 종이컵의 주검이 가슴 뭉클하다.
따지고 보면 우리 삶도 일회용 아니던가.

글_조현숙 (사)부산문인협회 편집위원, 시인

RE: VIEW

미술

인간에서 풍경으로의 망명, 새로운 신화를 향하여
류형욱 작가 개인전 _ 김승호

음악

이정현 협연·오충근 지휘, 부산심포니 NAC 시그니처 클래식 IV
엘가와 쇼스타코비치, 공간의 공감 _ 류태형

연극

부산 '지역특성화 국제교류 연출가전'이 만든
공동창작의 지형 _ 신윤아

인간에서 풍경으로의 망명, 새로운 신화를 향하여

류형욱 작가 개인전

글_김승호 동아대 교수



DSC00070_162.2×130.3cm, 한지에 혼합채색(Overpainting), 2026

오늘날 회화가 기술의 범람과 개념의 과잉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이, 묵묵히 집요한 선묘와 밀도 높은 색채로 인간과 자연의 원초적 관계를 파고드는 류형욱 작가가 오랜 침묵을 깨고 신작을 선보인다. 6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부산 이듬갤러리에서 개최되는 이번 개인전은 그가 오랜 기간 숙고해 온 예술적 고뇌와 수행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여정이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화면을 압도하는 대형 100호 작품 4점을 비롯해 밀도 높은 내러티브를 담은 30호 소품과 10호 소품 5점 등 총 21점의 엄선된 신작들이 이듬갤러리의 정적이고 몰입감 있는 공간을 가득 채운다. 관람객들은 아름다운 풍경이나 인물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내면세계가 거대한 우주적

질서와 결합하고 중국에는 하나의 신화적 풍경으로 정착해 가는 장엄한 연대기를 묵도하게 된다.

류형욱의 화면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도상은 인간을 압도하는 생명력의 자연이다. 바다와 숲, 산과 식물 등 그의 작품 속 자연은 작가가 집요하게 천착해 온 원초적 혼돈이자 억압의 공간이지만, 류 작가는 혼돈에 굴복하거나 가상의 인물 뒤로 숨는 나약한 인간상을 거부한다. 수풀을 하나의 거대한 제단이나 사제의 외투처럼 두른 채 독특한 수인(手印)을 취하는 인물들, 외부의 요란함과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중심을 지키려는 현대인의 고독한 자기성찰이자 피로사회에 대한 방어기제로 보인다. 이처럼 생명의 본질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작가의 세계관은 오랜 기간 홀로 투쟁하며 고뇌한 예술가로서의 외길이기에 가볍지 않다. 화면 속 인물들은 생명의 탄생과 소멸을 상징하는 매개물을 손에 쥐고 그로부터 흘러내리는 날것의 흔적들을 초연하게 감당해 내는데, 이는 고대 여신 숭배의 희생 제의마저 연상시킨다. 상처와 고통, 유한한 생명의 잔혹한 본질 속으로 거り낌 없이 걸어 들어가는 인물들을 통해 작가는 자연에 갇혀 있던 수동적 존재를 화면 정면에 노출하며 비로소 세계를 주재하는 주체적 사제로 부상시킨다.

이 장엄한 정신적 노동은 마침내 인간의 신체라는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여 거대한 지형학적 풍경으로 확장된다. 흰 구름과 장막처럼 두른 거대한 압산,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보석처럼 단단하게 빛나는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바위섬은 사실상 인물의 형상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거대한 자아의 초상화와 다르지 않다. 외딴섬이자 움직이지 않는 바위, 즉 고독한 주체의 정신은 우주적 풍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성에 대한 시각적 울부짖음과도 같다. 특히 전시장 안에서 마주하는 100호 대작들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이 거대한 자아의 풍경 속에 실제로 서 있는 듯한 압도적인 현장감을 선사한다. 동양의 신비주의적 세계관과 서양의 상징주의적 도상을 절묘하게 융합하



여 형상회화가 도달할 수 있는 서사의 한계를 탐닉한 류형욱. 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우리에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삶의 혼돈과 상처를 받아들이고, 끝내 자신만의 견고한 산과 섬을 마음속에 세워 올릴 수 있는가”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을 던진다.

오랜 기간 작가의 걸을 같이한 필자에게 비친 류형욱의 작품들은 그 거대한 정신적 성채를 시각적으로 현시함으로써 이 시대의 아름다운 신화로 기록되기에 충분하다. 특별히 이번 전시 기간에는 21점의 작품 뒤에 숨겨진 치열한 창작 과정과 작가의 깊은 예술 세계를 긴밀하게 공유할 수 있는 ‘작가와와 아티스트 토크’도 마련했다. 캔버스 위 거친 선묘와 색채의 궤적을 작가의 생생한 목소리로 직접 전해 들으며, 닫힌 화면을 넘어 우리 안의 견고한 영원성을 함께 세워 올리는 뜻깊은 교감의 현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정현 협연·오충근 지휘, 부산심포니 NAC 시그니처 클래식 IV

엘가와 쇼스타코비치, 공간의 공감

글_류태형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음악 칼럼니스트

배어난 음향을 자랑하는 낙동아트센터가 주최하고 33년 역사의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주관하는 <2026 NAC 시그니처 클래식>이 6월 27일 네 번째 무대를 열어 반환점을 돌았다.

공연은 쇼스타코비치 '축전 서곡'으로 막이 올랐다. 예술감독 오충근의 지휘봉이 허공을 갈랐다. 금관이 따스했다. 현의 저역이 부드럽게 합류했다. 오충근 지휘 연주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특유의 묵직한 음의 '바디감'이 낙동아트센터에 휘몰아쳤다. 타악기 소리는 긴박감을 고조시켰다. 목관악기의 리드와 금관악기의 마우스피스에 닿는 숨결이 거셌다. 정제되지 않은 야성이 꿈틀댔다. 호쾌하고 개방감 있는 발산이 첫 곡의 끝인상이었다.

첼리스트 이정현이 무대로 나와 협연을 준비했다. 엘가 첼로 협주곡은 재클린 뉘프레가 존 바비롤리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와 녹음한 음반이 각광받으면서 손꼽히는 첼로 협주곡으로 떠오른 역사적 배경을 지닌다. 다니엘 바렌보임과 결혼이란 화제성과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비극적인 뉘프레의 운명이 더해져 작품의 백그라운드가 됐다. 젊은 여성 첼리스트 이정현의 연주는 뉘프레의 존재와 오버랩되며 찡진성을 높였다.

이정현은 2018년 윤이상콩쿠르에서 우승했다. 2023년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50년 만의 첫 여성이자 최초의 아시아인 첼로 단원으로 선발돼 종신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모교인 커티스음악원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

다. 1악장이 시작되자마자 이정현은 큰 모션의 운궁으로 깊고 그윽한 첼로음을 길어내며 기세를 보였다. 비극적인 내러티브를 담고 있으면서도 고즈넉한 부드러움으로 폐부에 와닿는 소리였다. 첼로의 온갖 기교를 선보인 이정현은 1악장에서 협연자의 존재감을 확실히 했다. 고음으로 첼로 지판의 스케일을 훑을 때 오케스트라의 총주가 감동적이었다. 2악장은 피치카토로 시작됐다. 풍부한 비브라토와 표정은 3악장으로 이어졌고, 첼로의 흐느낌이 홀 전체에 퍼지는 느낌은 관객들의 감수성을 더욱 자극했다. 마지막 4악장에서 이정현은 민첩하고 밀도 높은 프레이징을 선보였다. 부산심포니의 반주는 그 위에 무게감을 더했다.

2부에는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이 연주됐다. 교향곡 5번 중 명곡들을 집중적으로 올리는 'NAC 시그니처 시리즈'에서 베토벤, 멘델스존, 슈베르트에 이은 네 번째 교향곡 5번이었다.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은 그의 15개 교향곡 가운데 가장 짜임새 있고 대중성도 갖춘 명곡이다. 하지만 곡을 쓰기까지 쇼스타코비치가 겪었던 극도의 스트레스와 억압을 놓치면 안 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암보로 지휘한 오충근의 시작은 단도직입적이었다. 직선적으로 풀어내는 주제 속에 커커이 쌓인 긴장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이 단호했다면 그다음부터 점차 신중해졌다. 호른이 또렷하게 울리며 뭉근한 파장을 퍼뜨렸고 현악 앙상블이 러시아 오케스트라처럼 시원시원했다. 튜바와 트롬본을 위시한 금관의 저역부가 홀 전체로 넓게



퍼졌다. 중간의 행진곡 부분에서는 타악기가 리듬이 떠나
가라 호쾌하게 울렸고 곡은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다.

조롱하는 듯한 분위기의 2악장에서는 냉소와 풍자를 의
도한 쇼스타코비치의 뜻이 잘 살아났다. 김주영 악장의 바
이올린 연주와 플루트 주자의 연주가 특히 귀에 와 감졌다.
금관악기는 넉넉하고 풍성한 규모로 관현악의 주위를 성
처럼 둘러쌌다.

소련 스탈린 정권의 정치적 압박 속에서 1, 2, 4악장을
갑옷처럼 두른 채, 진짜 작곡가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했
던 건 3악장이었다. 시작부터 현악군은 창백하게 여울졌
다. 오충근의 지휘는 무거운 분위기에서도 흐름을 이어갔
다. 하프와 플루트가 관현악과 어우러지는 합주는 불길함
을 모락모락 풍겼다. 오충근은 점차 거대해지는 현과 관을
독려했다. 피아노와 실로폰이 가세해 더해지던 긴장감은
침묵 속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마지막 4악장에서 부산심포니는 충주부터 묵직한 헤비
급 관현악을 선보였다. 열띤 충주에서는 바닥이 울릴 정도
로 현과 관의 질감이 잘 전달됐다. 특히 중음역대가 귀에
와 꽂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오충근의 지휘는 두꺼우
면서도 속이 알찬 사운드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팀파니와
호른의 활약 속에 축제적 성격이 지나치게 과도해지면서

묘한 언밸런스를 의도한 피날레의 웅장함은 인상적이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말러가 썼던 교향곡들은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까지 점차 폭발적인 공감을 얻
었다. 성과 속, 고매함과 키치, 삶과 죽음의 스펙트럼이 마
치 현미경에서 천체망원경에 이를 정도로 광대한 다이내
믹을 보여주는 말러의 세계가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더 널
리 이해되고 호응을 받게 되어서다. 그렇다면 말러 이후 그
자리를 차지할 작곡가는 누가 될까. 아마도 쇼스타코비치
일 것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학의 발달과 편
리해진 생활을 누리고 있음에도 디지털에 의해 감시당하
고 스트레스는 늘어만 간다. 소련 공산당의 억압을 감내
하며 쇼스타코비치가 쓴 교향곡, 협주곡, 실내악, 오페라
들은 말러가 놓쳤던 미세한 스트레스와 현대적인 냉소를
더욱 강렬하게 펼침으로써 공감할 접점들을 더 많이 만들
어 가고 있다.

이러한 특별한 공감은 특정한 공간이 있음으로써 가능
했다. 부산의 클래식 전용홀 낙동아트센터에 울려 퍼진 오
충근과 부산심포니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짜릿함
에 내재한 슬픔과 억압의 요소들을 보며 이런 생각은 더
욱 또렷해졌다.

부산 ‘지역특성화 국제교류 연출가전’이 만든 공동창작의 지형

글_신윤아 연극평론가, 드라마터그
사진 제공_(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

공동창작은 단순히 하나의 공연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창작 방식을 흔드는 일이다. 하나의 창작 방식이 다른 방식과 만나고, 낯선 미학이 익숙한 관습을 흔들며,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이 다시 다음 작업의 토대가 될 때 비로소 창작의 지형은 확장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교류는 공연 한 편을 만드는 일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연극 언어를 배우고 갱신하는 과정에 가깝다.

부산의 ‘지역특성화 국제교류 연출가전’(2026. 6. 17. ~ 28.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은 이러한 과정을 지역에 이식하기 위해 실천해 온 의미 있는 시도다. 해외 연출가와 지역의 신진 배우/창작진이 함께 작업하며 공연을 만들어 가는 이 프로젝트는 결과보다 과정, 완성보다 협업의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올해 부산에서 개최된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의 부대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것은 이러한 시도가 하나의 독립된 프로젝트를 넘어 지역 연극 생태계 안에서 지속 가능한 창작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현재의 실험과 축적된 성과를 함께 조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외 연출가와 공동창작과 이미 해외 진출의 성과를 거둔 작품들을 함께 배치한 구성은 국제교류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창작의 축적 과정으로 바라보는 프로그램의 지향을 보여준다.

물론 이번 무대 역시 모든 실험이 동일한 성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다. 서로 다른 연극적 문법이 만나는 자리에는 필연적으로 시행착오와 미완의 순간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번 ‘지역특성화 국제교류 연출가전’이 보여준 가치는 완성된 결과보다 새로운 질문을 향해 나아가려는 창작자들의 실험 정신을 무대 위에 드러냈다는 데 있다. 신체와 희극, 배우 훈련과 고전의 재해석까지. 저마다의 방식은 달랐지만, 모든 작업은 서로 다른 연극 언어를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몸으로 직조한 관계의 풍경: 극단 아이컨택 <다정한 상처>

불가리아 연출가 아나스타샤 디미트로바와 극단 아이컨택이 함께 만든 <다정한 상처>(2026. 6. 17)는 서사보다 신체를 앞세운 작품이었다. 작품은 ‘다정함’과 ‘상처’를 결합한 역설적인 제목처럼 관계 안에서 애정이 어떻게 돌봄과 폭력 사이를 오가는지를 배우의 몸과 움직임을 통해 탐색한다. 장미와 밧줄, 의자와 같은 오브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의미를 고정하는 상징이라기보다 배우의 신체를 확장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즉, 이 작품의 언어는 사물이 아니라 몸에서 시작된다.

인상적인 장면은 기타의 라이브 연주에 맞춰 시작된 춤이 점차 격렬한 몸부림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다. 파트너만 바뀔 채 동일한 움직임이 반복되는 구조는 관계 속에서 되풀이되는 감정의 순환과 벗어나기 어려운 인간의 맹목을 환기한다. 공연 후반, 장미가 흩어진 무대 위에 남겨진 배우들의 신체는 다정함이 남긴 흔적이자 상처의 풍경으로 읽힌다. 의미를 설명하기보다 몸의 움직임과 이미지의 축적을 통해 관객 스스로 관계의 감각을 조합하도록 만드는 연출 방식은 이번 공동창작이 선택한 하나의 연극 언어였다.

이러한 구성은 작품이 앞으로 더욱 탐구해 볼 지점 또한 남겼다. 참여 배우들의 실제 경험에서 출발한 장면들은 하나의 이야기로 수렴하기보다 각자의 기억과 감각을 병렬적으로 펼쳐 보인다. 그 결과 관객은 적극적으로 의미를 찾아가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동시에 끝내 붙잡지 못한 이미지들을 남겨두게 된다. 그럼에도 <다정한 상처>는 공동창작이 서로 다른 창작 방식과 연극 언어가 배우의 몸을 매개로 만나 새로운 감각을 빚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웃음은 어떻게 번역되는가: 극예술실험집단 초 <Mix Jam>

일본 연출가 후루카와 요시미츠와 극예술실험집단 초가 함께 만든 <Mix Jam>(2026. 6. 19)은 세 편의 일본 희극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엮은 공연이다. 거리의 뮤지션을 둘러싼 사랑과 현실의 간극, ‘바보’와 ‘천재’라는 이분법을 뒤흔드는 사고실험 그리고 공연 도중 대사를 잊어버린 배우의 혼란을 무대화한 메타 연극까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이어지지만 그 중심에는 인간의 모순과 사회를 향한 풍자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공연이 던진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이야기 자체보다 희극은 어디까지 번역될 수 있는가에 있었다. 비극이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기반으로 한다면, 희극은 언어와 문화, 리듬과 정서에 더욱 깊이 의존하는 장르이다. 특히 연출이 강조한 오사카 희극 특유의 ‘마뺌’과 호흡은 한국 관객에게는



극단 아이컨택 <다정한 상처>



극예술실험집단 초 <Mix Jam>



극단 우릿 <바보의 조각들>

다소 낮은 감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화적 간극을 좁히기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은 일본식 설정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적 맥락이 필요한 대사는 부분적으로 부산의 지명과 일상으로 치환하는 각색을 선택한다. 웃음의 발생 조건을 한국 관객의 감각에 맞게 조율하려는 고민이 읽히는 대목이었다. 실제로 공연은 웃음의 리듬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며 객석의 반응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문화 번역은 단순히 언어의 치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희극의 리듬과 연기 호흡, 관객이 웃음을 받아들이는 문화적 감각까지 함께 이동해야 비로소 하나의 공연 언어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Mix Jam>은 일본 희극의 문법을 부산이라는 지역적 맥락 안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변주할 수 있을지를 탐색한 실험이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질문 자체를 공연의 형식으로 밀고 나갔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창작의 의미를 확인하게 했다.

웃음은 가장 보편적인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지역적인 감각 위에서 작동하는 언어이기도 하다. 보편적인 이야기조차 문화적 문법을 통과하는 순간 전혀 다른 웃음이 된다는 점에서 <Mix Jam>은 희극이야말로 가장 섬세한 번역을 요구하는 장르임을 환기한 작업이었다.

내면을 드러내는 또 다른 방식: 극단 우릿 <바냐의 조각들>

폴란드 연출가 야콥 마르고시악과 극단 우릿이 함께한 <바냐의 조각들>(2026. 6. 21.)은 안톤 체홉의 <바냐 삼촌> 일부 장면을 발췌해 인물의 심리와 배우의 신체를 새롭게 연결하려는 시도였다. 연출은 미하일 체홉의 배우 훈련 방식을 바탕으로 인물을 설명하기보다 배우의 움직임과 상상력을 통해 내면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등장인물마다 특정 오브제를 부여하고, 느린 템포 속에

극단 스타플레이어 <오레스테스>



서 반복되는 신체 행동을 중심으로 장면을 구성한 연출은 심리의 외적 재현보다 감정의 작동 원리를 시각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러한 연출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난 장면 중 하나로 아스트로프와 엘레나의 대면을 꼽을 수 있다. 서로를 밀고 당기는 신체의 힘이 역전되는 과정은 두 인물의 욕망과 심리적 주도권을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들이 공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언어로 응집되기까지는 조금 더 다듬어야 할 여지를 남겼다. 오브제와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순간에는 인물의 내면이 살아났지만, 일부 장면에서는 체홉 특유의 복합적인 심리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 이는 부분 발체라는 형식이 가진 제약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바냐의 조각들>은 배우가 인물의 내면에 접근하는 과정을 공연의 일부로 드러내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실험이었다. 다만 배우를 위한 훈련의 원리가 곧바로 관객을 위한 공연 언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의 신체와 장면을 관통하는 구성이 조금 더 긴밀하게 다듬어진다면, 이번 작업이 지향한 내면의 시각화는 더욱 설득력 있는 공연 언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을 비추는 고전의 변주: 극단 스타플레이어 <오레스테스>

극단 스타플레이어의 <오레스테스>(2026. 6. 25. ~ 27.)는 이번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공동창작의 선순환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지난해 동일 프로젝트를 통해 출발한 작업이 올해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인 공연으로 다듬어졌고, 당시 참여했던 배우들이 프로젝트 그룹을 구성해 다시 무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그리스 연출가 야니스 파라스케보폴로스 역시 다시 한번 작업에 동참했다. 국제교류가 일회성 협업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창작진의 지속적인 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공연은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축적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냈다.

공연은 에우리피데스의 고대 비극을 동시대 감각으로 새롭게 호출한다. 특히 공동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코러스는 이 작품에서 여론과 군중 심리의 형상으로 변주된다. 집단은 끊임없이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 내고, 그 감정은 빠르게 증폭되며 또 다른 분노를 생산한다. 특히 헬레네를 향한 적개심은 개인의 판단이라기보다 군중 안에서 증폭되는 감정의 연쇄로 제시되며 그리스 비극이 다루었던 공동체의 윤리는 어느새 오늘날 미디어 환경 속에서 형성되는 여론의 풍경과 자연스럽게 맞닿는다. 무대 한편의 높은 곳에서 노트북을 다루며 공연을 지켜보는 '신'의 존재는 절대적 권위를 지닌 신이라기보다 분위기와 흐름을 설계하는 존재처럼 위치하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인간의 판단과 감정을 끊임없이 둘러싸고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을 연상시킨다. 또한 배우들은 연극놀이를 떠올리게 하는 움직임과 신체적 규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는 고전의 엄숙함을 재현하기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 가는 무대적 감각을 구축했다. 그 결과 고전은 더이상 과거의 서사가 아니라, 오늘의 관객이 현재형으로 경험하는 사건으로 되살아난다.

낭독스테이지(2026. 6. 28.)로 마련된 극단 맥의 <새들의 회의>와 부산연극제작소 동녘의 <맹진사댁 경사>는 이번 프로그램 안에서 또 다른 층위를 형성했다. 두 작품은 이번 국제교류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공연이 아니라, 해외 협업과 국제무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지역을 넘어선 성과를 보여준 사례들이다. <새들의 회의>는 해외 공연을 통해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부산 창작의 외연을 확장했고, <맹진사댁 경사> 역시 해외 공동창작과 교류를 이어가며 지역 공연이 다른 문화권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재의 실험과 축적된 성과를 한자리에서 함께 조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그램은 국제교류가 창작의 과정에서 어떻게 성장의 모델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번 '지역특성화 국제교류 연출가전'은 하나의 답보다 다양한 질문이 공존하는 무대였다. 신체를 통해 관계를 탐색한 공연이 있었고, 희극의 문화적 문법을 실험한 공연이 있었으며, 배우의 내면을 시각화하려는 시도와 고전을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읽어낸 작업도 있었다. 각각의 시도는 완결된 결과라기보다 앞으로의 창작을 더욱 풍성하게 발전시켜 갈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성은 부산 연극이 새로운 창작의 지형을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징후였다.

국제교류의 의미는 공연 한 편의 성공에 있지 않다. 서로 다른 창작 언어를 경험하고, 그 경험이 다음 작업으로 축적되며, 다시 지역의 창작 역량으로 환원되는 과정에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 가능성을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몇몇 작업은 현실의 성과로 증명하기 시작했다. 서로 다른 연극 언어가 부산이라는 지역 안에서 만나 새로운 창작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 지금, 이 축적의 시간이 앞으로 부산 연극의 미래를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역사와 함께 읊어보는 부산가요

— 제12화 —

「에레나가 된 순희」와 댄스홀

6.25 전쟁은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이산가족을 발생시키고 극심한 사회적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고아와 미망인을 급증시키는 등 한국 사회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전쟁은 총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이념의 갈날은 아직도 살아남아 서로를 향하여 견제하고 대립한다. 어디 그뿐인가. 사회적 후유증도 만만찮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쟁의 어둠 속에 피어난 '에레나'의 탄생이다.

그날 밤 극장 앞에서 그 역전 카바레에서
보았다던 그 소문이 들리는 순희
석유 불 등잔 밑에 밤을 새면서
실패 감던 순희가 다홍치마 순희가
이름조차 에레나로 달라진 순희 순희
오늘 밤도 파티에서 춤을 추더냐

그 빛깔 드레스에다 그 보석 귀걸이에다
목이 매어 항구에서 운다는 순희
시집갈 열아홉 살 꿈을 꾸면서
노래하던 순희가 피난 왔던 순희가
말소리도 이상하게 달라진 순희 순희
오늘 밤도 양담배를 피고 있더냐

-「에레나가 된 순희」 가사 12절

6.25 한국전쟁 당시 부산에서 가진 변화한
광복동 거리(1951년)

「에레나가 된 순희」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3년 부산에서 출시된 2박자 탱고 리듬의 경쾌한 가요로서 손로원 작사, 한복남 작곡, 한정무가 불렀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의외로 퇴폐적인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있다. 역전 카바레, 파티, 드레스, 보석, 귀걸이, 여기에 양담배까지 예전의 가요에서 감히 들어 볼 수 없는 외국 맛이 풍기는 다양한 단어가 등장한다. 이 가요가 탄생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 가면서 음미해 보면, 한 여성의 비운에 찬 서글픔이 내면에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된다.

노래 속 '에레나가 된 순희'는 본래 북쪽에서 남쪽 부산으로 피란 온 열아홉의 시골 아가씨였다. 어머니로부터 신부 수업을 받던 꿈 많은 시골 처녀가 갑자기 일어난 전쟁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운명이 바뀌게 되고, 결국 피란지에서 의 마지막 선택지는 유흥가였다. 이를테면 흐르는 세월과 함께 댄스홀에서 춤을 추고 담배와 양주를 접하면서 퇴폐적인 세속에 빠져들고 말았다. 전쟁 직후인 1956년 당시 이 땅에 에레나가 된 여성은 무려 11만여 명이나 되었다.¹⁾ 이들은 우리의 딸이자 누이였고, 내 고향의 순박한 아이 '순희'였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직설적인 노랫말로 표현한 작사가는 우리에게 가장 서정적인 노랫말인 「봄날은 간다」를 작사한 손로원이었다.

처음에 이 가요는 북한에서 피란을 왔던 한정무가 이 곡의 작곡가인 한복남이 운영하던 서구 아미동의 도미도레코드를 통해서 취입하였다. 그러나 레코드 판매는 저조했다. 그러다 5년이 흐른 후, 한복남 사장은 녹음을 새롭게 다시 하려고 한정무를 찾았으나, 이미 그는 교통사고로 저세상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대타로 나선 가수가 당시 KBS 전속 가수 출신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학사 가수, 안다성이었다. 그가 취입한 노래는 기대 이상의 성공이었다. 하지만 안다성 음반에서는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가사의 맨 끝 소절을 '오늘 밤도 파티에서 웃고 있더라'로 고쳤다. 창법은 한정무보다 유려하고 매끈하지만 원곡 가사보다 한결 싱겁고



1953년 도미도레코드에서 출시된 「에레나가 된 순희」 레코드

맛있게 느껴져서 고유의 맛이 제대로 살아나질 않는다.²⁾ 이러한 노래의 인기를 반영이나 하듯 이후로 '에레나' 이름을 제목으로 둔 노래가 많이 만들어졌다. 김성현의 '추억의 에레나', 위키리의 '항구의 에레나', 남일해의 '명동의 에레나'와 '두고온 에레나' 그리고 인순이의 '에레나라 불리운 여인', 이정선의 '내 사랑 에레나', 블루벨즈의 '마리아 에레나' 등이 연이어 나왔다. 그러나 원조의 벽을 허물지 못했다.

'에레나'는 19세기 러시아 작가 투르게네프가 지은 『그 전 날 밤에』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러시아 여자 이름이었다. 또한 서양에서 불리는 여자 이름인 엘렌, 엘린, 헬레나, 엘레나 등을 통칭하는 의미로 불렸다는 말도 있다. 그 가운데 일본식으로 음역한 이름인 '에레나'가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아직 일본에서는 드물게 쓰고 있는 이름 중의 하나다. 문제는 이 노래가 불린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에레나'가 술집 접대부를 뜻하는 은어로 비하되었다는 점이다. 양공주, 유엔 마담, 양색시, 히바리, 주스 걸 등을 대신해서 불렸기 때문이다. 전쟁이 남긴 하나의 아픈 흔적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휴전과 함께 이 노래가 불리면서 부산항에는 태평양을 건너온 밀

이승만 대통령이 주최한 외교관 초청 파티에서 공개적으로 춤을 추는 모습(1959년, 국가기록원)



가루와 옥수수가루 등의 구호물자가 하역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국가와 대다수 국민은 어려워도 일부 부유층 사이에서는 사치가 극심했다. 그 당시 사치의 대명사로 불리는 유행어가 몇몇 있었다. ‘삐딱구두’와 ‘제비구두’가 대표적이었다. 미군을 대상으로 한 윤락여성들은 입술과 손톱을 빨갛게 칠하고 화려한 옷에 하이힐(‘삐딱구두’라 부름)을 신고 날 보란 듯이 거리를 활보했다. 이를 보고 “유엔 사모님”이란 점잖은 유행어가 떠올면서 이들의 옷차림은 어느새 일반여성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이에 질세라 부유층 남자들도 밀수입한 영국산 양복을 척척 빼입고 삐걱삐걱 소리 나는 속칭 “제비구두”를 신고 멋을 부렸다. 누구보다 이러한 구두는 댄스홀을 드나들며 유행을 좇던 제비족이 즐겨 찻던 구두였다.

이 무렵 부산에서는 대낮에 비밀리에 운영하던 가정집 댄스업소에서 가정주부가 낀 춤바람 사건이 터져 큰 파장을 일으켰다. 1952년 8월 27일 자 부산일보 사회면에는 “洋춤에 미친 閨中女!”란 제목을 달고, “초량동 493번지 이 모 씨 집 2층에서 쌍쌍이 어울려서 춤을 추던 남녀 30여 명을 검거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사건 현장에선 여고생을 비롯하여 6남매를 둔 모 회사 사장 부인(당시 43세)이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렸고, 결혼해서 두 달밖에 안 되는 한 새댁은 “남편

이 알면 쫓겨난다”며 눈물로 애원하기도 했다. 당시 신문의 사회면에는 매일 비밀댄스홀 단속이나 퇴폐풍조를 고발하는 사건이 심심찮게 실리곤 했다. 모 관공서 기관장은 댄스홀에서 만난 여성과 정을 통하다가 이혼을 당하고 사표를 냈는가 하면, 어느 장관급 부인은 춤바람이 나서 돌아다니다가 소설의 주인공으로까지 등장, ‘장본인이다. 아니다’로 화제를 뿌린 적도 있었다.³⁾

이를 두고 당시 뜻있는 사람들은 망국병이라고 혹평하면서 “댄스는 본래 사교를 목적으로 한 춤인데 어떻게 된 셈인지 육체적 향락을 위한 접촉제로 타락하고 말았다”며 한탄했다. 당시 부산 시

내에는 허가가 난 댄스홀만 20여 군데나 되었고, 미군과 유엔군을 위한 전용 댄스홀은 10여 개가 있었다. 이런 곳은 입장료가 매우 비싸서 쉽게 들어갈 수 없었다. 이러한 틈새 공략으로 들어선 것이 비밀댄스홀이었고, 1957년께 부산에는 70여 개소나 되었다. 유행처럼 번진 비밀댄스홀의 난립은 사회 분위기를 흐리게 하면서 여론마저 매서웠다. 그러나 좀처럼 춤바람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에레나가 된 순희」는 이러한 피란수도 부산의 어두운 단면을 고발한 노래였다.

이 가요가 불리고 1년 후인 1954년 소설가 정비석은 서울 신문에 『자유부인』을 총 215회에 걸쳐 인기리에 연재하였다. 대학교수의 아내인 오선영은 우연히 대학 동창을 만나 상류사회에 발을 들이게 되고, 이후 남편의 제자와 춤바람을 시작으로 못 남성들과 어울리며 가정 파탄 위기를 맞게 된다. 결국 남편의 아량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다.

전후 한국 사회의 사교춤 유행과 전쟁미망인이 직업 전선에 진출하면서 여성들의 경제적인 지위 향상과 더불어 퇴폐풍조가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정비석은 당시 사회의 변화상을 파격적인 소재를 통해서 개인의 욕망을 흥미롭게 그려냈다. 연재가 끝나고 정음사에서 출판된 단행본은 한국 출

판 사상 최초로 10만 부 이상의 판매 기록을 세운 근대 최초의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소설의 폭발적인 인기로 힘입어 1956년 한형도 감독은 동명의 영화를 만들었다. 당시 상류층의 화려한 파티와 댄스홀 풍경 등이 영상을 통해 시각화되면서 소설 못지않은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다. 이러한 흥행에 편승해서 전국에는 카바레 등 밤 문화를 즐기는 업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여기에 한국판 카사노바라는 ‘박인수 사건’까지 터져 사회 분위기가 더욱 어수선했다.

박인수는 해군 대위로 한국전쟁에 복무하던 중 변심한 애인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고 방황하다 불명에제대를 당하였다. 이에 앙심을 품은 그는 반감을 품고 사회에 나가서 색다른 복수를 도모했고, 현역 군 장교인 것처럼 사칭하며 국일관, 낙원장 등 고급 댄스홀을 드나들었다. 헌병 복무 시절에 익힌 노련한 사교춤 실력으로 그와 춤을 추던 여성들은 흰칠한 용모와 해군 장교라는 타이틀에 쉽게 무너졌고, 2차는 자연스레 이어졌다. 54년부터 1년 동안 그에게 농락당한 미혼여성들이 무려 70여 명에 이르렀다. 피해 여성들의 상당수가 여대생이었으며, 고위급의 딸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그에게 붙은 칭호는 ‘한국의 카사노바’였다.

이처럼 전쟁 이후 댄스홀에서 파생된 퇴폐적인 모습을 보고 「에레나가 된 순희」는 가요로서, 정비석의 『자유부인』은 소설로서 당시 한국의 어두운 사회를 고발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뒤를 이어 터진 ‘박인수 사건’이 앞서 고발한 두 작품 속의 퇴폐적인 모습을 마치 증명이라 하듯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항상 역사의 격변기에는 문화충동이 일어난다. 개항기에는 서양의 면제품인 옥양목에서부터 양복 그리고 성경과 청진기, 커피와 양주, 사진기와 안경 등이 들어와 아픔과 변화를 이끌었고, 해방을 맞아서는 자유와 함께 마카오 신사풍이 유행을 이끌었다. 한국전쟁을 맞아서는 이 땅에 미국 문화가 들어와서 새로운 욕구를 분출시키면서 가치관과 소비풍조도 변하기 시작했다. 양공주, 양담배, 댄스, 카바레, 소시지, 치즈, 햄, 껌 등이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의 풍속과 입맛을 바꿔놓고 말았다. ‘에레나’도 그중의 하나로서 한국전쟁이라는 어려운 격변기에 우리에게 다가온 화려한 이름 속의 어두운 얼굴이 아니었던가 한다.

글_이용득 부산항역사문화연구소장



1956년 6월 9일 당시 서울의 수도국장에서 개봉한 영화 『자유부인』의 포스터

- 1) 1956년 4월 당시 국내의 한 언론 통계에 의하면 ‘에레나’ 부류의 여성들은 무려 11만 명으로 외국인 상대 6만, 사창私娼 여성 3만, 일반전대부 2만 명이였다.
- 2) 이동순, 『부산 가요 이야기』, 국제신문, 2021. 1. 10.
- 3) 『臨時首都千日』, pp.576~577, 부산일보사, 1985

“자유는 책임에서 완성된다”

- 좋은 민주주의는 좋은 시민을 키우고, 좋은 시민은 다시 민주주의를 지킨다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금 시험대에 서 있다?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는 총칼이 아니라 국민의 한 표로 세워집니다. 투표投票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국민주권國民主權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우리 민주주의의 신뢰를 다시 점검하게 만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고,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했다는 불만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일은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절차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흔들린다면 민주주의의 토대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自由, Freedom는 총칼뿐 아니라 선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시민이 정치에서 멀어질 때도 조용히 약화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성급한 단정보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가꾸어야 할 문화文化입니다. 자유는 헌법 조문 속에 머무는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날마다 확인되는 ‘살아 있는 가치’입니다. 공정한 선거와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가 함께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생명력을 얻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앞에 놓인 과제는 어느 한 정파의 승패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더욱 굳건하게 만들 것인가에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1809~1865)은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선언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국민이며, 국민의 의사가 가장 온전하게 표현되는 제도가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인류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 왔는가?

그 답은 어느 한 정치인의 연설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류 문명을 이끌어 온 성현과 철학자들의 사상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사상의 숲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유: 왜 인류 최고의 가치가 되었는가?

인류의 역사歷史는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고, 자유를 위해 희생하지 않았던 민족도 드물었습니다. 자유는 권력이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함께 태어난 천부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결코 저절로 주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인류는 전제정치專制政治와 폭정暴政, 노예제도奴隸制度和 식민植民 지배, 독재獨裁와 전체주의全體主義를 거치며 자유의 소중함을 배워 왔습니다. 자유를 잃으면 인간은 행동뿐 아니라 양심과 사상, 창의성과 희망까지 제약받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Socrates(BC 470~399)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독배毒杯를 마시면서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자유를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권리가 아니라 양심과 이성에 따라 살아가는 책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BC 384~322) 역시 자유를 방종放縱이 아니라 덕과 책임의 균형으로 보았습니다. 시민이 덕을 실천할 때 공동체共同體도 건강해진다는 그의 생각은 오늘날 민주주의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동양에서는 공자孔子(BC 551~479)가 ‘인仁’과 ‘예禮’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가 말한 자유는 무질서한 방임이 아니라 절제와 배려 속에서 이루어지는 조화였습니다. 맹자孟子(BC 372~289)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군주는 가장 가볍다”라고 하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권력이 아니라 백성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주권재民主權在民 원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의 성현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지향하는 바는 같은 결론으로 다가섭니다.

자유는 권리인 동시에 책임인 것입니다.

권리 없는 의무는 억압이 되고, 의무 없는 권리는 방종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함께 실천할 때 비로소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게 됩니다.

“자유를 지키는 힘은 제도에서 오는가, 아니면 시민에게서 오는가?”

이 질문을 안고 이제 자유와 책임을 더욱 깊이 탐구한 동서양 사상가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유와 책임 : 동서양 성현이 일러준 민주주의의 길

인류는 자유를 갈망해 왔지만, 자유를 끝까지 지켜낸 문명文明은 많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얻는 것보다 지키는 일이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서양의 성현들은 시대와 언어는 달랐지만 한결같이 자유와 함께 책임責任, Responsibility을 강조했습니다.

공자는 정치의 출발점을 제도보다 사람에게서 찾았습니다. 『논어』 ‘위정편’의 ‘위정以德爲政以德’은 덕을 갖춘 지도자는 강제強制가 아니라 인격人格으로 사람을 이끈다는 뜻입니다. 국가는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信賴와 품격品格으로 유지된다는 통찰입니다.

주희朱熹(1130~1200)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통해 개인의 수양이 사회 질서의 출발점임을 역설했고,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권력은 공공公共을 위한 봉사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양 정치철학은 자유를 권리의 언어로 더욱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존 로크John Locke(1632~1704)는 생명·자유·재산을 인간의 자연권으로 보며 국가의 존재 이유를 그 보호에서 찾았습니다.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1712~1778)는 자유는 공동체의 합의와 법 위에서 지켜질 수 있다고 설

명했고,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1724~1804)는 인간을 수단手段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도덕적 자율성’을 자유의 본질로 이해했습니다.

이어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1806~1873)은 타인他人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1805~1859)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은 외부外部가 아니라 시민의 무관심無關心과 다수多數의 횡포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A. Hayek(1899~1992)는 권력 집중을, 존 롤스John Rawls(1921~2002)는 사회적 약자의 자유를,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1906~1975)는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각각 강조했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이들의 사상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자유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책임이다.”

자유는 개인만을 위한 특권特權이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지탱하는 약속約束입니다.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룰 때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유지되며, 시민의 양심과 참여가 살아 있을 때 자유는 비로소 지속됩니다.

자유 : 왜 반복적인 위협을 받는가

인류는 자유를 얻기 위해 수많은 희생犧牲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획득하는 순간부터 다시 위협받기 시작합니다. 자유를 무너뜨리는 힘은 대부분 외부의 적이 아니라 사회 내부에서 자라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Plato(BC 427~347)은 민주政民主政이 절제節制를 잃으면 혼란을 거쳐 다시 강력한 권력을 부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민주주의가 다수決多數決만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 소수의 자유를 함께 보호할 때 건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시민

이 공적 영역에서 멀어질수록 자유는 약해지고, 카를 포퍼 Karl Popper(1902~1994)는 비판批判과 토론討論이 사라지는 순간 ‘열린 사회’도 함께 무너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동양의 통찰도 다르지 않습니다. 맹자는 “백성의 마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라며 하며 민심을 잃은 권력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동서양의 사상은 결국 같은 곳에서 만납니다.

“자유는 외부의 억압보다 내부의 무관심과 책임 회피 속에서 더 쉽게 무너진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유지維持되고 갱신更新되는 과정입니다. 시민이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자유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결국 자유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헌법도, 제도도 아닙니다. 책임 있게 자유를 사용하는 시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자유를 지키는 시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답은 민주주의의 제도制度보다 시민의 양심良心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유 : 시민의 양심 위에서 완성된다

자유는 인류가 가장 어렵게 얻었고, 가장 어렵게 지켜 온 가치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한 번 성취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의식과 윤리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책임 속에서 비로소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정치적 권리인 동시에 도덕적 가치이며, 민주주의 역시 완성된 체계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책임으로 끊임없이 유지되고 갱신되는 과정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선거는 자유를 가장 구체

적으로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유불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신뢰를 더욱 굳건히 세우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 앞에 섭니다.

“자유는 누구에 의해 지켜지는가?”

“헌법입니까?”

“제도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시민입니까?”

인류의 역사는 이미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 독배를 들었고, 공자는 덕과 예를, 맹자는 백성을, 로크는 자연권을, 칸트는 도덕적 자율을, 토크빌은 시민의 책임을 말했습니다. 시대와 언어는 달랐지만, 그들이 남긴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자유는 시민의 권리로 시작되지만, 시민의 양심과 책임 속에서 완성된다.”

좋은 민주주의는 좋은 시민을 키우고,

좋은 시민은 다시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이것이 인류 문명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遺産이며, 오늘의 대한민국이 다시 새겨야 할 자유의 본질本質입니다. ‘제대로 모양을 갖춘 자유’가 철철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글_심수화 언론인 저널리스트

이달의 AI 사용법 프롬프트로 나만의 캐릭터 만들기

이번에 사용할 AI tool은 ChatGPT(챗지피티)입니다. 이번 달에는 프롬프트를 활용해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봅니다.
최근 유행하는 메이플스토리 게임 캐릭터 스타일을 응용해 자신의 모습을 게임 캐릭터로 변신시켜 보세요.

[작업 준비]

- 1 캐릭터로 만들고 싶은 개인 사진 또는 셀카를 준비한다.
캐릭터 대상자 단독 사진 권장, 단체사진의 경우 인식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 2 검색창에 'ChatGPT' 또는 '챗지피티'를 검색한 후 접속한다.
- 3 로그인

[본격적인 캐릭터 제작 및 프롬프트(AI 지시문) 작성 방법]

- 1 준비한 사진을 첨부한다.
- 2 프롬프트 입력창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작성한다.

당신은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캐릭터를 메이플스토리 플레이어 아바타 스프라이트로 변환하는 전문 픽셀 아트 디렉터다.

- ### [작업]
- 1 {캐릭터명}의 대표 외형 특징을 분석한다. (헤어스타일/머리색/눈 색상/.../대표의상 등)
 - 2 위 특징을 유지하면서 메이플스토리 플레이어 캐릭터 아바타 구조로 재해석한다.
 - 3 결과물은 실제 메이플스토리 플레이어 캐릭터 스프라이트처럼 보여야 한다.

★ 프롬프트 전문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면 『예술부산』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드시 전체 프롬프트를 복사해야만 동일한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다.

- 4 QR코드를 통해 프롬프트를 복사한 뒤 ChatGPT에 붙여 넣고 전송하면 자신만의 캐릭터를 완성할 수 있다.

[최종 정리]

최근에는 챗 지피티를 활용해 사진을 다양한 스타일로 변환하는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다. 지브리 스타일 변환에 이어 자신의 모습을 게임 캐릭터처럼 표현하는 방식도 많은 사람이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캐릭터에 담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해당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원하는 캐릭터 스타일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 다른 캐릭터로도 변경 가능하다.

이번 프롬프트를 통해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외형 분석뿐 아니라 아바타 구조와 비율, 시점, 얼굴 구조, 출력 조건 그리고 제외해야 할 요소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술부산』 5월호 '이달의 AI 사용법: 사진으로 영상 만들기'와 함께 활용하면 자신만의 캐릭터를 활용한 영상 제작도 가능하다.

[완성본]

이번에 소개한 프롬프트 전문과 결과물은 『예술부산』 인스타그램(@artbusan_monthly) 또는 아래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이미지 사진 예시〉



〈프롬프트 작성 후 출력된 캐릭터〉



월간 『예술부산』 광고지면안내

“월간 『예술부산』은”

1997년 창간된 **종합 예술 잡지**입니다. 부산에서 전시·공연되는 예술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예술인들의 활동과 업적을 아카이브하며 부산 예술계의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부산만이 아닌 **전국으로 배부**됩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전국 지회·지부, 언론사, 국립중앙도서관 및 부산의 도서관, 부산은행 전 지점, 부산의 주요 갤러리·공연장, 공공기관, 시·구청, 일반 정기구독자 등.

- What?**
- 예술 관련 단체 또는 기업 광고
 - 각종 행사, 공모, 전시, 공연, 신간 광고 외

- Where?**
- 표2 (앞표지 안쪽) 700,000 (₩)
 - 표2대면 (앞표지 안쪽 우측면) 700,000
 - 표3대면 (뒷표지 안쪽 좌측면) 500,000
 - 표3 (뒷표지 안쪽) *마감!* 500,000
 - 표4 (뒷표지) *마감!* 1,000,000

- How?**
- 광고 사이즈 : 가로 200 × 세로 260mm
 - 문의 : 051)612-1372
artbusan1997@naver.com

* 1년 연속 게재시, 또는 예총 회원 및 회원 단체인 경우 할인 적용 가능함.

[illegible]

2026 제52회
부산미술대전 작품공모

(사)부산미술협회가 주최하는 제52회 부산미술대전 작품 공모가 시작됐다. 공모 분야는 한국화 서양화 조각 판화 공예 디자인 서예 학술·평론 영상·설치 문인화 수채화 민화·불화 등 12개 부문이다. 원서 교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1차 접수는 작품사진 심사로 진행되며, 접수일은 10월 20일 하루 동안 운영된다. 2차 접수는 1차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11월 15일 부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서예와 문인화 부문은 8월 3일 부산예술회관 4층 회의실에서 별도로 접수한다. 출품은 1인당 2점까지 가능하며, 수상작은 12월 1일부터 부산문화회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세부 일정 및 출품 요강은 부산미술협회 홈페이지(<http://www.bfaa.or.kr>) 협회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30회 한국해양문학제

8. 7.(금) 부산일보 10층 대강당

(사)부산광역시문인협회(회장 박혜숙)가 주최하는 '한국해양문학제'가 오는 8월 7일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문학제는 제31회 한국해양문학 심포지엄(오후 1시~3시), 2025 한국해양문학 특강(오후 3시~4시 30분), 제30회 한국해양문학상 시상식 및 한국해양문학제 개막식(오후 4시 30분~6시 30분) 등으로 진행된다. 올해 한국해양문학상에는 총 6,288편의 작품이 접수돼 높은 관심을 모았다. 대상은 김경배의 소설 『별빛 아래 돌아눕는 사람』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김재동의 시 「천문항해」, 한승주의 소설 『소금꽃』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김형미의 시 「전복이 꾸는 꿈」, 최월련의 동화 『잘피 숲 우체국』, 정연수의 시 「물빛으로 쓴 편지」, 배강달의 희곡 『병덕어멈』이 각각 수상했다.



시네바움 8월 강좌안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시네바움

시네바움이 8월 한 달간 매주 월요일 인문·예술 강연으로 관객을 만난다. 3일에는 김석모 미술사학자가 '전성기 르네상스의 거장들'을 주제로 르네상스 미술의 정점을 이룬 거장들의 작품 세계를 살펴본다. 이어 10일에는 '모더니즘 미술의 탄생', 24일에는 '귀스타프 쿠르베와 사실주의'를 주제로 서양미술사의 흐름을 이어간다. 31일에는 박홍규 영남대학교 명예교수가 '이육사와 아나키즘'을 주제로 시인 이육사의 삶과 사상을 조망한다. 이와 함께 정기 프로그램으로 '중국어로 읽는 당시 삼백수'와 '하이쿠 산책'도 운영된다.

문의 010-2774-3455



융복합 예술 콘텐츠 기획 공연Ⅱ 존 윌리엄스 오케스트라 콘서트

8. 12.(수) 오후 7시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영화음악의 거장 존 윌리엄스의 대표 작품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로 만나는 융복합 예술 콘텐츠 공연이다. 1부에서는 〈해리 포터〉, 〈E.T.〉의 명곡을 통해 환상과 모험의 세계를 펼쳐 보이며, 드러머 김영훈의 스페셜 솔로 무대가 더해져 색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2부에서는 〈인디애나 존스〉, 〈스타워즈〉의 음악으로 영웅 서사의 웅장한 에너지를 전한다. 이어 3부에서는 올림픽 공식 주제가 〈쥬라기 공원〉, 〈스타워즈〉의 대표곡을 통해 깊은 감동과 압도적인 피날레를 완성한다. IYSO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영화 속 명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선율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문의 051)328-9998



썸머 클래식 콘서트

8. 15.(토) 오후 3시
부산콘서트홀

고전과 낭만을 대표하는 피아노 협주곡의 명작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썸머 클래식 콘서트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통해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음악 세계를 선보인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섬세한 피아노 선율이 어우러져 협주곡만의 깊이 있는 감동을 전한다. 피아니스트 피터 오브차로프와 예수가가 각기 다른 해석과 뛰어난 기량으로 무대를 이끈다. 클래식 애호가는 물론 협주곡의 매력을 처음 접하는 관객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여름 음악회로 기대를 모은다.

문의 02)6292-9366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

8. 15.(토) ~ 16.(일) 오후 3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초연 이후 객석과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월간 한국연극 '공연 베스트7', 한국연극 평론가협회 '올해의 베스트3', 제61회 백상예술대상 젊은연극상 등을 수상한 화제작이다. 재개발을 앞둔 오래된 연립주택을 배경으로 독립을 꿈꾸는 재수생은 빈과 가족의 비밀을 통해 가족과 사랑,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오빠의 커밍아웃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와 '좋은 삶'의 가치를 유쾌하면서도 섬세하게 풀어낸다. 배우들이 끊임없이 배역을 바꿔 연기하는 독창적인 연출은 젠더와 가부장적 가치관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유쾌한 웃음과 묵직한 메시지를 함께 전하는 쿼터 가족극으로 공감과 성찰의 시간을 선사한다. 문의 051)780-6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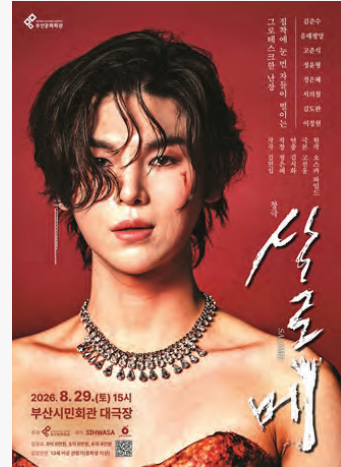


맥화랑 연례기획 20th 10-200, 행복한 그림전

7. 18.(토) ~ 8. 22.(토)
맥화랑 갤러리

맥화랑의 대표 여름 연례기획전 '10-200, 행복한 그림전'이 올해로 20회를 맞아 관람객을 찾는다. 2007년 시작된 이번 전시는 미술품 소장자의 대중화와 갤러리 문턱 낮추기를 목표로 꾸준히 이어져 온 맥화랑의 대표 기획전이다. 올해는 신진부터 원로, 작고 작가까지 61명이 참여해 회화·조각·사진·판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20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장에서는 지난 20년간의 참여 작가들을 기록한 아카이브도 함께 공개돼 전시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다. 예술을 일상 가까이에서 즐기고 소장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될 것이다.

문의 051)722-2201



창극 <살로메>

8. 29.(토) 오후 3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오스카 와일드의 대표작을 새롭게 풀어낸 탐미적 창극이다. 붉은 달이 뜬 유대의 궁정을 배경으로 얹히고살린 사랑과 집착, 욕망이 만들어내는 비극을 강렬하게 그려낸다. 예언자 요한을 향한 살로메의 광적인 사랑과 이를 둘러싼 인물들의 욕망이 극의 긴장감을 더하며 인간 내면의 광기와 집착을 밀도 있게 담아낸다. 전통 창극의 음악성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져 오스카 와일드 원작의 탐미적 분위기를 새로운 무대로 재해석했다. 성스러움과 속됨, 사랑과 욕망이 충돌하는 강렬한 서사를 통해 깊은 여운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문의 051)607-6000



박청용 개인전 진각眞覺: 참된 깨달음을 향한 자력의 여정

6. 19.(금) ~ 8. 30.(일)
오갤러리

‘참된 깨달음’을 뜻하는 전시 제목처럼, 작가는 내면을 탐구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작품에 담아냈다. 관람객은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과 마음을 되돌아보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번 전시는 예술을 통해 새로운 시선과 사유를 나누고자 하는 오갤러리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다. 박청용 작가의 작품은 일상의 익숙한 감각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사유의 순간을 선사한다. 예술과 삶이 자연스럽게 맞닿는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참된 깨달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 서서 예술이 전하는 작은 깨달음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51)746-3777



연극 <게릴라 씨어터>

9. 4.(금) ~ 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5시/ 일요일 오후 3시
나다소극장

독재정권에 맞서는 게릴라들이 연극을 무기로 현실에 저항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정글에서의 상상 속 훈련은 실제 전쟁의 현실과 맞닿으며, 인물들은 연극을 통해 민중을 설득하고 서로의 존재를 증명해 나간다. 연기하고 서로를 속이는 상황 속에서 진실과 믿음, 연대의 의미를 묵직하게 되짚는다. 자막과 음성해설을 더한 접근성 공연으로 더 많은 관객이 같은 순간과 감정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총이 아닌 연극으로 세상에 맞서는 이들의 선택은 예술이 지닌 힘과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문의 051)780-6060



피란수도 부산유산

6. 25.(목) ~ 9. 27.(일)

부산근현대역사관 기획전시실

부산근현대역사관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기념해 세계유산 우선등록목록에 선정된 ‘피란수도 부산유산’ 11곳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한다. 전쟁 속에서도 국가 기능을 유지하고 피란민을 품었던 부산의 역사를 세계유산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전시는 국가체계의 유지, 피란민의 삶, 국제사회의 연대와 평화 등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며, 다양한 유물과 기록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생생하게 전한다. 특히 11개 유산의 정밀 축소 모형을 함께 선보여 관람객들이 피란수도 부산의 공간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이 간직한 전쟁과 평화, 연대의 역사를 되새겨 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다.

문의 051)607-8041



봄물 드는 길 이석래 / 책퍼냄열린시

자연을 일정한 거리에서 바라보며 존재의 본질을 담담하게 탐색하는 서정 시집이다. 시인은 자연과 하나가 되기보다 대상과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한 채 사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깊은 사유를 펼쳐 보인다. 특히 자연의 질서와 생명의 이치를 선볼리 판단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이 돋보인다. 시집에 수록된 작품들은 꽃과 나무, 곤충 등 자연의 다양한 풍경을 섬세한 관찰과 풍부한 은유로 형상화하며, 평범한 대상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 『봄물 드는 길』은 절제된 시선과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시집이다. 독자들에게 조용한 울림과 사유의 시간을 선사한다.



주문하신 봄 리필 됩니다 손무경 / 책만드는집

부산의 풍경과 계절의 감성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시조집이다. 시인은 익숙한 도시의 일상과 자연을 섬세한 언어로 그려내며, 그 속에 스며 있는 그리움과 삶의 온기를 전한다. 특히 '봄'은 단순한 계절을 넘어 희망과 회복,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시집 전반을 관통한다. 동해남부선을 비롯한 부산의 풍경은 시인의 기억과 감정이 켜켜이 쌓인 공간으로 펼쳐지며, 도시의 시간과 삶의 서사가 한 편 한 편의 시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또한 평범한 일상과 풍경에서 길어 올린 서정은 감각적인 표현과 만나 깊은 공감과 여운을 전한다.



포쉐의 공간 조승구 / 시공문화사

건축 도면 속 겹게 채워진 영역인 '포쉐Poché'를 통해 공간의 본질을 새롭게 탐구하는 인문 건축서이다. 저자는 포쉐를 단순한 도면 기법이나 벽체의 두께가 아닌, 건축이 공간을 조직하고 기억을 축적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로 해석한다. 고대 로마 건축부터 이슬람, 르네상스와 바로크를 거쳐 현대 건축에 이르기까지 포쉐의 개념이 어떻게 이어지고 변화해왔는지를 흥미롭게 살펴본다. 또한 르 코르뷔지에, 미스 반 데어 로에, 자하 하디드 등 현대 건축가들의 작업을 통해 포쉐가 지닌 의미를 확장하며 새로운 건축적 시각을 제시한다. 건축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닌 기억과 관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두께의 문제로 바라보게 하는 책이다.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3층 4층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시로 푸른 감성을 전하다 051)631-1377
2 (3층 4층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시로 푸른 감성을 전하다 051)631-1377	3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30분 (오전 오후) 부산미술협회 제52회 부산미술대전 서예 문인화 접수 051)632-2400	4 댄스포즈 (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부채춤교실(4층연습실) 15시~16시30분	5 가곡교실(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아랑고고장구(2층연습실) 15시~16시30분	6 사진아카데미 초급반(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포즈 (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교실 심화반(4층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4층연습실) 16시~17시50분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7	8
9	10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30분	11 댄스포즈 (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부채춤교실(4층연습실) 15시~16시30분	12 가곡교실(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아랑고고장구(2층연습실) 15시~16시30분	13 사진아카데미 초급반(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포즈 (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교실 심화반(4층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4층연습실) 16시~17시50분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14	15
16	17 (3층 4층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공간의 여정 051)631-1377	18 댄스포즈 (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부채춤교실(4층연습실) 15시~16시30분 (3층 4층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공간의 여정 051)631-1377	19 가곡교실(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아랑고고장구(2층연습실) 15시~16시30분 (3층 4층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공간의 여정 051)631-1377	20 사진아카데미 초급반 (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포즈 (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교실 심화반 (4층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 (4층연습실) 16시~17시50분 (3층 4층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공간의 여정 051)631-1377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21 (3층 4층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공간의 여정 051)631-1377	22 (3층 4층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공간의 여정 051)631-1377
23 (3층 4층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공간의 여정 051)631-1377	24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30분 (3층 4층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숨겨진 얼굴, 물빛으로 피어나다 051)631-1377	25 댄스포즈 (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부채춤교실(4층연습실) 15시~16시30분 (3층 4층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숨겨진 얼굴, 물빛으로 피어나다 051)631-1377	26 가곡교실(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아랑고고장구(2층연습실) 15시~16시30분 (3층 4층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숨겨진 얼굴, 물빛으로 피어나다 051)631-1377	27 사진아카데미 초급반(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포즈 (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교실 심화반(4층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4층연습실) 16시~17시50분 (3층 4층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숨겨진 얼굴, 물빛으로 피어나다 051)631-1377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28 (3층 4층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숨겨진 얼굴, 물빛으로 피어나다 051)631-1377 (오전오후야간) 부산통합예술치료연구소 특음 창의표현지도사 자격증 교육 010-3779-9234	29 (3층 4층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숨겨진 얼굴, 물빛으로 피어나다 051)631-1377
30 (3층 4층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숨겨진 얼굴, 물빛으로 피어나다 051)631-1377	31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30분 (3층 4층전시장 야외광장) 부산조각가협회 부산조각가협회전 010-8503-3114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메세나 광장

김 성 주 BNK부산은행 은행장

정 은 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해주시면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1997@naver.com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 편집실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E-mail** artbusan1997@naver.com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 ·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문화와 예술의 즐거움을 누구에게나!

Play on Busan
문화공연

오늘도 두근두근 BNK는
누구나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모두의 부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모두를 위한
BNK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계속 됩니다

범시민 도서교환전

부산은행 어린이 미술대회

부산은행
갤러리

부산은행 창립기념 음악회

정가 5,000원



9 771976 974008
ISSN 1976-9741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